APR 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 1094　1983년 3월 3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rch 30,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케네디언 호응 커

「미스코리아」대회 협찬 1만달러

"한인사회재정에만 의존하던 관습 탈피할때"

4월23일 토론토한국일보 주최로 힐튼·하버캐슬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대한 호응이 한인사회의 차원을 넘어 캐네디언사회에 까지 확산, 뜻있는 인사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미스·코리아」 집행위원회 윤방현위원장은 5일 현재 캐네디언회사및 개인으로부터 1만달러이상에 달하는 현금및 상품을 협조받았으며, 현재의 추세로 보아 캐네디언사회로 부터의 협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이번 미인대회는 집행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캐네디언사회로 부터의 호응이 의외로 크다고 말하면서, 한인행사는 한인사회의 협찬에만 의존했던 과거에서 이제 탈피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윤위원장은 미인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 계속 캐네디언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터시티·뉴스(Intercity News Co.)의 휴·F·커리(Hugh F·Curry)사장은 지난달 31일 본사를 방문, 윤위원장에게 3,000달러짜리 수표를 전달하면서 경품으로 「포니」승용차 1대를 구입할 것을 부탁했다.

인터시티·뉴스는 펜트하우스(Penthouse), 옴니(Omni), 허스러(Husler), 비디오·리뷰(Video Review), 콤퓨트 & 일렉트로닉스(Computer & Electronics)등 각종잡지를 공급하는 회사로, 토론토, 오타와, 위니펙등 3개 도시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다.

토론토에만 1,000여 한인소유 코너·스토아를 포함, 3,000여개소의 고객을 갖고 있는 인터시티사는 한인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지난번 「실협의 밤」행사에서도 실협회원들과의 유대강화에 공이 인정되어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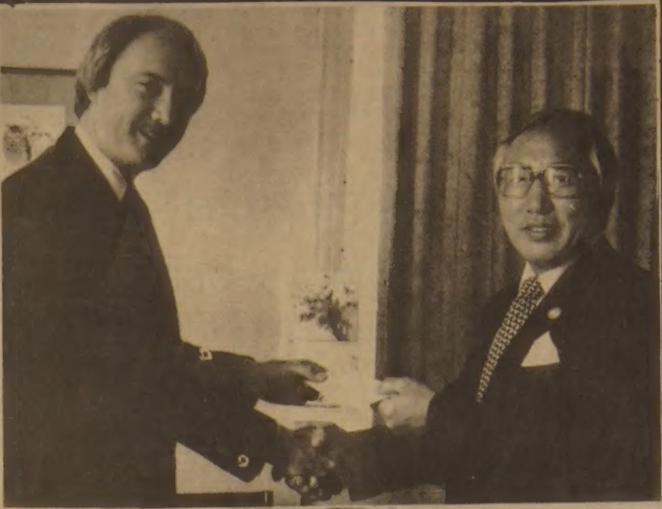
커리사장 부인 케서린(Kathleen)여사도 「미스·코리아」대회에 깊은 관심을 표하면서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위촉희망을 표명,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쾌히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커리사장은 캐나다에서 선발된 미인이 서울에서 열리는 본국대회에서 미스·코리아로 뽑혀 미스·유니버스대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앞으로 매년 미스·코리아대회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커리사장의 「포니」경품요청에 따라 캐나다현대자동차에 지난주 전화를 걸어 실업인협회에 판매한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포니를 살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담당 관계자는 「포니」가 아직 시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원가에 내놓을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시장개척에 40여만 달러의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윤위원장은 전했다.

「포니」측의 이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집행위원회는 커리사장을 이해시켜 포니대신 포니와 상응하는 훌륭한 경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윤위원장은 말했다.

〈3면에 계속〉


◆인터시티·뉴스 커리씨로부터 「미스코리아」대회 경품비 3,000달러를 받는 윤방현 미스코리아 집행위원장(오른쪽)

미스코리아후보 제4호

1983 고전무용가를 꿈꾸는 유경희양

고전무용가로서 대성할 것을 꿈꾸고 있는 유경희양이 미스·코리아 후보 제4호로 등장했다.

◆유경희양

국민학교 6학년때부터 고전무용을 시작, 아시아 국제 예술경연대회 은상을 수상, 각종 대학 콩쿨 입상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유양은 작년5월 이민, 현재 다운스뷰 시니어 스쿨 12학년 재학중이다.

살푸리, 부채춤등에 뛰어난 재질을 가졌으며, 장래의 꿈도 무용가로서 유명해지고 싶다고 밝힌 경희양은, 이번 미스·코리아대회에서 입상해서 동양인 모델로서 서양사람을 압도하고 싶은 또 하나의 포부도 있다고 말한다.

막내동이로서 어려서부터 미스·코리아감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소크라테스,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이집트,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용에 관한 일체도구라고.

자신의 매력의 포인트를 눈이라고 생각하며, 야채샐러드와 장미꽃을 좋아한다.

64년생, 167cm의 키에 52kg체중, 35-24-36이다. 황용현부동산 추천.

이두복공사 부임

한국대사관

(오타와)한국대사관에 이두복(40)공사가 3월31일부로 부임했다.

신임 이공사는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공군장교로 복무했으며 알젠틴, 카이로, 튜니시아, 뉴욕등지의 해외근무와 외무부공보문화과장, 의전관등을 역임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오메가시계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김종필 전국무총리

15일 미국향발…콜롬비아대 초청

(서울4일=연합)김종필전국무총리가 뉴욕 콜럼비아대학의 초청으로 약 2개월간 미국에 머물기 위해 오는 15일 미국을 향해 떠난다.

현 국가안전기획부로 불리우는 전 중앙정보부 창설자인 김씨는 이번 도미길에 전 주캐나다 대사 한병기씨, 전 공화당의원 김상연씨를 대동한다.

〈오늘의 시세〉

금(런던 하오 FIX)	$528.88/oz
은(토론토)	$13.58/oz
캐나다 1달러	US$0.8093
미 화 1달러	CAN$1.2357
원화·캐네디언달러 교환율 (서울 외환은행 전신환 매입/매출)	615.95/619.05

외은 뱅쿠버지점

9월 개설…에드몬톤·칼가리에 순회업무 개시

81년 10월 토론토에서 캐나다 현지법인으로 발족, 82년초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이 「캐나다한일은행」의 본점이 있는 뱅쿠버에 지점을 설치키로 결정, 한[illegible]은행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82년 3월 역시 캐나다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캐나다한일은행」은 지난 10월초 토론토지점 개설허가를 받고 12월30일 로열·뱅크·플라자 3040에서 임시 개점했다가 금년 2월15일 1 First Canadian Place 69층으로 옮기고 본격교민상대영업을 계속 외환은행과의 경쟁에 먼저 뛰어들었었다.

외환은행의 최승나행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은행은 토론토지역에서 이룩한 영업기반을 바탕으로 캐나다전역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점망을 확대, 은행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9월 뱅쿠버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행장은 이어 뱅쿠버지점의 구성은 약10명의 인원으로 출발하여 지점장및 차장등 1-2명만 본국지원 또는 토론토본점직원을 파견하고 나머지 직원은 모두 현지교민 또는 기타현지인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행장은 또한 이미 관계당국으로부터 지점개설허가를 취득했다고 전하면서 개점시기를 9월로 결정한 것은 세계경제및 캐나다경제가 금년들어 점차 회복세에 들어감에 따라 서부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주종산업인 자원개발투자가 금년하반기 이후 활기를 띄울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카 교역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대태평양연안제국교육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수신 외환은행전무는 앞으로 설치될 뱅쿠버지점은 교민금융을 비롯한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점포로 뱅쿠버, 캘거리, 에드몬톤등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에 대해 각종 금융지원을 하며 이외에도 한국계상사및 교민무역상사에 무역금융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전무는 뱅쿠버, 캘거리, 에드몬톤지역에 교민이 15,000-20,000명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지점이 없는 캘거리, 에드몬톤지역에는 순회업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전무는 또한 모든 현지법인은행은 연방재무장관의 승인아래 지점수를 5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순회지역예상지인 캘거리, 에드몬톤에도 장차 지점을 설치, 뱅쿠버지점을 서부지역을 총관장하는 지역본부로 만들 구상이라고 전했다.

〈2면에 계속〉

◆4일 외환은행 뱅쿠버지점 개설을 발표하는 최승나행장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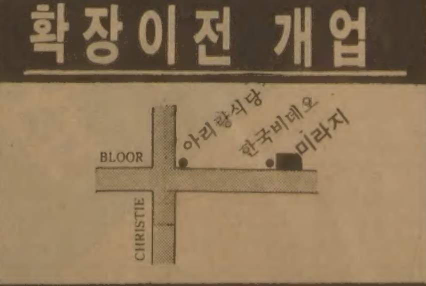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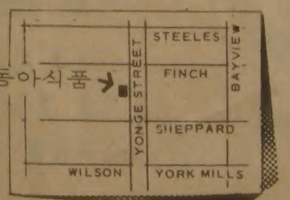
YOUNG I. HYUN
C.A.
캐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4월5일(화)부터
확장이전 개업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 옆)
(416)530-1870 권수희

동아식품
그랜드 오프닝
저희 두 사람이 뜻과 정성을 합하여 교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장소에 식품점을 개점하게 되었읍니다.
5월초에 개점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송종호·김홍배 드림


5568 YONGE ST.　(R) 663-1339 Mr. 김　(R) 881-6431 Mr. 송

칼빈신학교
이사회소집공고

본 이사회 83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저 하오니 소만 참석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기 —

일시 : 1983년 4월16일(토) 하오1시
장소 : 칼빈신학교 강당
252 BLOOR ST. W.
교육회관 332호
안건 : 과년도 경과보고
임원개선
신년도예산안
기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캐나다노회 칼빈신학교
이사회 이사장 조진동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캘거리서 예술가곡의 밤

소프라노 이주연씨, 피아니스트 김옥현씨

◆피아니스트 김옥현씨(왼)와 소프라노 이주연씨

토론토의 소프라노 이주연씨가 캘거리에서 활약중인 피아니스트 김옥현씨와 함께 오는 29일(금) 하오8시 캘거리 시내에서 예술가곡의 밤을 개최한다.

캘거리·마운트·로열·칼리지·컨서버토리 초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주회에서 이씨는 슈만의 연가곡 〈여자의 생애와 사랑〉, 플랭의 〈Airs Chantes〉등 외국가곡과 박재훈곡 〈나 언제나 주를 찾아가〉, 김연준곡 〈진실〉등 한국가곡과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중에서 미미의 아리아 〈Donde Lieta Usci〉를 연주할 예정이다.

연주장소는 캘거리 마운트·로열·칼리지 리틀극장이며, 입장료는 성인 7달러, 학생과 노인 5달러이다.

이주연씨는 이화여자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뒤 독일정부 장학생으로 뮨헨에서 수업했으며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쿨 1등, 몬트리얼성악콩쿨 1등 등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63년이래 한국, 유럽, 북미도시에서 독창회및 오페라에 출연, 최근 캘거리, 에드몬톤, 키치너등에서 연주했으며 현재 토론토 로열·콘서버토리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옥현씨는 서울대 음대, 맥길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과 캐나다 각 도시에서 많은 독주회를 가졌으며, 밴프예술학교와 캘거리 음대에서 반주자로 활약, 현재 캘거리 마운트 로열 칼리지에서 지도하고 있다.

박명진 바이올린연주회

26일밤 CNIB회관…입장료 무료

토론토에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27)군이 오는 4월26일 독주회를 갖는다.

로열·콘서버토리에서 6년간 장학금으로 공부한 박군은, 어릴때 앓은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 캐나다전국맹인기구(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의 도움을 받으며, 바이올린에 열중하고 있다.

박군은 현재 토론토·심포니의 악장(Concert Master)이며, 캐나다 정상급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스티븐·스태릭(Steven Staryk)으로 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박명진군

이번 연주회를 위해 박군이 준비중인 곡목은 파가니니의 소나타 12번과,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로 협주곡의 피아노 반주는 역시 토론토 교민인 피아니스트 신수명양이다.

신양은 토론토대학 음대를 졸업했다.

박군의 이번 연주회는 CNIB 주최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연주장소는 CNIB회관 강당(1929 Bayview Ave.,×에글링턴 북쪽)이다.

황필연여사 사망

40여년교육계헌신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전 회장 신성열씨의 장모이며, 경북 김천시 성의여고 교장역임등 정년퇴직까지 40여년간 교단에 몸바쳐온 황필연여사(75)가 지난 1일 성금요일 저녁6시30분 심장마비로 미시사가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Rosa Morrison장의사(467 Sherbourne St. Tor.)에 안치, 4일(월) 하오 8시 「합동연도」가 있고, 5일(화) 상오11시 쎄인트·폴성당에서 최규식신부 집전의 장례미사를 올린 후, 유해는 6일(수) 따님 김현순씨(전 이대교수)가 한국으로 모셔간다.

식물인간 생일맞아

7년동안 혼수상태

(스톡홀름, 뉴저지-AP)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불구, 지난 7년동안 계속 혼수상태인채 식물인간으로 생존해있는 카렌·앤·퀸란양이 30일 29세의 생일을 맞았다.

퀸란양을 유아때 양녀로 입양한 그녀의 부모들은 1976년 대법원이 퀸란양에 죽을 권리를 인정,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한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퀸란양을 위해 매년 생일미사를 드려왔다.

社說

극단 "얼"의 창단공연성과를 기림

이민사회의 문화방향은 민속성에

극단 "얼"은 토론토지역에 사는 연극동인들의 모임이다. 3월중에 이들은 창단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국의 민속극 「맹진사댁경사」전2막5장을 3회에 걸쳐 한인사회 앞에 내놓았다. 작년 9월에 창단을 본 이래 6개월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를 선보인 것이다.

이번 극단 "얼"의 창단기념공연은 한인 컴뮤니티에 깊은 감동의 충격을 남겼다. 여운이 있는 충격이었다. 첫날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극단에 관계된 인사들의 강렬한 미의식이 관객의 가슴에 와 부딪쳤다. 폭소와 박수는 이의 반증이었다. 막이 내리고 집을 향해 떠나면서 관객들은 한마디씩 하였다. "이것 오랫만에 실컷 한번 웃었는걸." "아주 좋았어, 정말 재미 있었어."

관객들은 서로 축하하며,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민작가 홍기만씨는 이번 연극무대 위에서 "깃발"의 이미지를 보았다고 쓰고 있다. 살아 있는 코리언의 정신, 수준에 올라 있는 문화의식을 작가는 거기에서 보았으리라. 극단 "얼"은 한인사회로부터 앙콜공연 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연이 아니다.

•

이민사회의 문화적 기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와 닿는 질문들이 있다. 이민사회란 과연 하나의 독특한 문화권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문화와 캐나다문화로 부터 다같이 소외된 채, 이민사회는 한낱 문화의 불모지로 남을 것인가? 문화라고 불려 손색이 없을만한 우수성을 한인이민사회는 제 힘으로 가꾸어 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화의 방향은 무엇이겠는가? 이와같은 질문들은 다양문화사회 속에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으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존의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

이번 극단 "얼"의 『맹진사댁 경사』공연은 소재의 선택, 감동성의 창조라고 하는 두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민사회의 문화내용과 방향을 두고 가지는 질문들에 대하여 깊은 시사성을 던지고 있다.

무엇이 관객들에게 그토록 파장이 길고 충격성이 강한 감동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까? 여러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무대가 이민사회 속으로 던진 충격파의 근원은 고향상실자들에게 잃어버린 고향을 안겨다 주었다는데 있지 않을까? 막이 열리자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터뜨린 박수는 바로 고향을 되찾은 사람들의 반가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우리들 실존의 근거, 사람됨의 뿌리에 근접함으로써 맛보는 기쁨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확실히, 무대장치와 무대위에서 전개된 스토리 속에는 이민자의 시각을 치는 신선감이 있었다. 기와집, 대문, 돌담이 거기에 있었다. 대청마루에 돗자리가 깔려있고, 창호지문이 달렸는가 하면 벽에는 산그림이 걸려있었다. 고무신이 있고 등잔불이 있고 피나리 봇짐에 담뱃대가 있었다. 고향과 전설이 거기에 와 있었다. 맹진사댁의 혼사를 둘러싼 드라머 속에는 계급사회의 모순이 그려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진하디 진한 한국인의 서정과 해학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민자의 시야 속에 고향과 민족의 내력을 회복시켜줌이었다.

•

한편, 테에마의 선정 면에서 극단 "얼"이 이민사회에 보여준 사려성과 더불어 이 극단이 연극대본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무대위에 그야말로 연극적으로 펼쳐 내놓기위하여 이룩한 연기적인 성과 또한 높이 사져야 한다. 물론, 개별적인 연기력에는 연기자마다 차이가 있고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점은 이 극단의 장래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평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영역에서 제기될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번 연기진이 팀워크로서 관객앞에서 창조해낸 아름다움, 감동성은 아낌없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성의있는 연기들이었다. 그 뒤에 숨어있을 수많은 시간의 맹렬한 연습과 개인적인 희생을 컴뮤니티의 성원들이 이해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 점은 틀이 덜 잡힌 이민사회라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야무야하는 문화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들이 나타나서 봉사라는 이름밑에 우리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만 대개 그 봉사의 내용과 "연기력"이 지극히 조잡하고 열등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한층 돋보여야할 부분이 된다. 우리는 극단 "얼"의 성과앞에서 감히 질적으로 우수한 『이민문화』의 가능성을 말해 볼 용기마저 얻는다.

우리는 극단 "얼"의 만족스러운 창단공연을 거울삼아, 『이민문화』의 가능성과 방향이 민속적인 테에마에 있지 않을까하는 근거와, 이민사회 속에서도 문화의 우수성을 기약해 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세워본다. 극단 "얼"관계자 일동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아울러, 이들의 봉사에 대한 컴뮤니티의 성원을 부탁한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05>

어머니와 아들 ⑫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험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의 대담성은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사회에서 강자로 살아남으려면 타협과 실력이 필요하다는것을 차츰 깨달았다.

타협은 사회 구성원의하나로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실력은 이미 다져져있었다.

사회와 타협하기 위해 그는 학교에 들어갔다.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한편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학교에 다닌다는것은 조직에서도 몰랐다. 머리가 비상한 그는 한번 암기한 것은 결코 잊어먹는 법이 없었다.

스무살때 그는 치과 대학에 들어갔다. 수년 후 그는 치과의사 자격증을 땄고, 결혼도 했고, 개업했다. 사회와의 적극적인 타협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사회에 안주하기 위해 조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되었다. 조직은 그에게 어느 거물급 기업인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치과의사로서 가정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한 그가 그 명령에 따를리 만무했다. 조직은 그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듣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인디언과 백인의 혼혈인 그의 아내는 집에서 괴한들에게 강간 살해되었다. 그때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으로 그를 체포했다. 모든것이 이상하게 들어맞았다.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불려나온 사람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그를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는 가까스로 사형만은 면하고 무기수로 복역하게 되었다.

교도소의 감방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미칠것 같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인내심을 길러나갔다. 그리고 사무친 원한을 가슴깊이 삭이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복수의 대상은 아내를 죽인 자들과 엉터리 재판으로 그를 교도소에 감금한 사회였다. 사회와의 타협은 이제 없었다.

그는 5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것은 쓰라린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교도소에 들어온지 만 5년하고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그는 버스에 실려 작업장으로 가던도중 다른 죄수들과 함께 버스를 탈취해서 도망쳤다. 목숨을 건 탈주 끝에 그는 안전지대로 피신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그는 과거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를 살해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치웠다. 그로서 그는 아내의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혼자가되었다. 그는 경찰과 조직의 추적을 피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뒷마당에는 눈이 하얗게 깔려있었다.

안방쪽에서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기침소리에 귀를기울이다가 우물쪽으로 걸어갔다. 우물을 지나 앞마당으로 나왔다.

어째서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서 발견되었을까? 그는 그 이유를 알수가 없었다. 토막살해된 그 「모세」를 가리키는 말일까?

『…모세는 말이 없다』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毛世"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떠오르나"

朴 男 그림

한국어린이3명 오타와착

난치심장병 무료치료차…나오미여사 도움

(오타와)난치 심장병을 앓는 3명의 한국어린이와 1명의 타일랜드 어린이가 무료 수술및 진료를 받기위해 4일 오타와에 도착했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나오미·브론스타인(37)여사가 역시 오타와 거주의 의사 밥·번바움씨와 함께 창설한단체인 「캐나다 어린이 치료회(Heal the Childern Canada」의 주선으로 캐나다에 오게된 한국어린이는 임보연(8)양, 장명환(3)군, 윤연희(10)양등 3명으로 이들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이다.

나오미여사는 지난해 11월중 번바움의사와 함께 직접 이들을 만나 면담한 뒤 초청수속을 끝내고 3주전 다시 한국과 타일랜드를 방문, 이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타일랜드 어린이 피라다·나오나팟(2)양은 임파선분비 이상으로 왼쪽다리가 정상보다 5배나 길게 자란 불구자로 오타와의 의사들은 수술로서 피라다양의 다리를 정상으로 만들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두살짜리 타일랜드 어린이 피라다(오른쪽)양이 정상보다 5배나 길어진 왼쪽 다리를 무료로 고치기 위해 나오미여사(중앙)의 품에 안겨 4일 오타와에 도착했다. 머리를 따은 어린이는 나오미여사의 친딸 레이디양. 나오미씨는 심장병을 앓는 한국어린이 3명도 함께 데리고 왔다.

〈1면에서 계속〉

외환은행 뱅쿠버지점

벵쿠버, 캘거리, 에드몬톤지역에는 쌍용, 대우실업, KAL, 범양전용선, 포철, 영풍산업, 대우실업, 진흥기업등 많은 한국계회사들이 진출해 있다. 토론토에는 금호와 현대자동차만이 현지법인인데 반해 뱅쿠버에는 대다수의 한국계기업에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있다.

토론토에는 연락사무소를 두고있는 조흥은행도 현지법인 개설이 불가피할 것같다. 그 이유는 81년11월에 개정된 캐나다은행법에 의하면 캐나다내에서 은행이 비즈네스를 하려면 현지법인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정때문에 사무소만을 두고 있던 외환은행과 한일은행이 서둘러 현지법인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일은행 토론토지점의 한철환지점장은 외환은행의 뱅쿠버진출에 환영을 한다면서, 한일은행으로서도 교민사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교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블루어거리에 지점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해, 금년내로 한일은행 블루어지점이 설치될 것임을 암시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ATARI 400을 사실경우 게임테입 3개 무료증정〈수량제한〉

홈 컴퓨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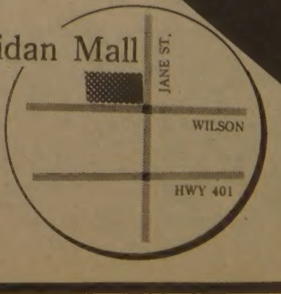
신장개업

금번 저희가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홈 컴퓨타및 각종 부품, 컴퓨타 교육자료를 구비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개업일 1983년 4월 2일

ㅁ이제 자녀교육을 위하여 홈 컴퓨타를 구입할 시기가 되었읍니다.
ㅁ홈 컴퓨타 구입에 관한 상담을 성심껏 해드리겠읍니다.
ㅁ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자 하옵니다.

-취급품목-
*ATARI *COLECO *INTELLIVISION
*C. ITOH'S PRO-WRITER PRINTER
*AMDEK COLOR MONITOR
*각종 교육자료및 GAME



COMPUPLACE INC. ☎ : 243-0411
1700 WILSON AVE. (SHERIDAN MALL) 김성구, 홍성호

종교계소식

선교100주년기념준비 연합성회

4월29일~5월1일, 한인장로교회에서

한국선교 100주년기념준비연합성회가 오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토론토에서 열린다.

한국선교 100주년기념 토론토지구준비위원회(위원장 김재광목사)의 주최와, 토론토한인교역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성회의 강사로는 한국의 100주년기념사업회 총재인 한경직목사(영락교회 원로목사)이다.

매일밤 7시30분부터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onto, 전화 762-1495)에서 갖는다.

이번 성회의 임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대 회 장 : 계화삼
부대회장 : 박희민, 최상봉
준비위원장 : 김재광
총 무 : 조이식
회 계 : 고성원, 안정식
예배위원 : 조창환
홍보위원 : 장은덕, 심상대
재정위원 : 구연원, 전택균, 이준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 : 강대길, 이창진
음악위원 : 박재훈, 권순국
동원위원 : 정관일, 조성관 김희하
섭외의원 : 박춘하, 조진동
부녀위원 : 윤수복, 황길녀, 김연덕

특별묵상회

천주교 한맘청년회

한인천주교교회의 한맘청년회(지도부장 최영호)는 오는 4월29일 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특별묵상회(피정)를 뉴마켓 소재의 사론피정의집에서 갖는다.

「청년신앙과 사명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젊은 활기와 정의감, 그리고 신앙에 터전한 바른자세와,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해를 목적으로 순서가 짜여진다.

이 행사를 위한 봉사자는 허영식, 최영호, 김문고, 윤중태, 허길문, 장추국씨등이다.

전품목 사은 대매출

개업4주년 종교서관

기독교 문서복음화를 기치로 출발한 토론토 종교서관(대표 김명준)이 개업4주년을 맞았다.

기독교 신학관계 서적, 성경류및 주석, 목회활동에 따른 서적및 자료, 성가테잎, 설교테잎등의 선교자료, 교회학교 교재및 활동용품, 성화및 교회용품, 일반소설및 사전 전집류에 이르기 까지의 대량의 다양한 서적을 비치하고 있다.

동 서관은 또한 각종 월간지에 대한 구매및 총판하여 신앙성장은 물론, 교양활동을 돕고 있다.

한편 개업4주년을 기념하여 전 품목에 대한 사은 기념세일을 실시하여, 각 교회와 독자들에게 보답코자 한다.

세일기간은 4월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이다.

동 서관의 주소는 714 Bloor St. W. 이며, 전화 535-1920이다.

심령부흥회

오순절장로교회

오순절장로교회(담임목사 장세택)에서는 오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심령부흥성회를 갖는다.

매일 저녁 7시30분과 토요일 새벽5시30분에 집회를 갖는 성회의 강사는, 김형태목사(시울 시온장로교회 시무)이다.

이번 성회를 위한 자세한 문의 전화는 245-4770, 651-4621, 762-1495로 하면 된다.

◀ 알립니다 ▶

귀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종교란」을 신설하고 각 교회와 종교단체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칼톤대학 정대위목사

한국신학대학장에 취임

(오타와지국발)오타와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며 칼톤대학(University of Carlton)에서 동양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정대위목사(62세)가 금년 9월학기 부터 한국신학대학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약 5년간 오타와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며 영적성장은 물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온 정목사는, 1949년 토론토 임마누엘신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에는 예일대학에서 Ph. D를 획득하였고, 한국에서는 전국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정목사는 또한 토론토한인연합교회(300 Bloor St, W.)의 2대 목사로도(1968,7-1969,6)재임했었다.

「월간중앙교회」발간

한인중앙장로교회

한인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정관일)에서는 문서선교의 일환으로 "월간중앙교회"를 창간 발행했다.

동교회 천경수 출판위원 위원장은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에 이 간행물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란다"로 말했다.

이 간행물의 내용은 정관일목사의 말씀, 간증, 신앙수기, 성경공부, 교회활동소식, 평신도및 새신자를 위한 정보등 각종소식을 망라하고 있다.

한편 동교회는 신앙문제나 개인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을 마련하고 있다.

전화는 961-8361, 249-5461로 이용할 수 있다.

창립기념 부흥성회

— 충현교회 —

충현교회(담임목사 박경남)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창립제2주년 기념부흥성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의 강사로는 서울의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시무하는 피종진목사(한국부흥사협의회 부회장·치안본부교경실행위원)이다.

시간은 매일저녁 7시30분이며, 토요일·주일새벽 6시와 토요일 낮10시이다.

한편 동교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봄방학을 맞아 「Bible Camp」를 개최하고, 성경공부, 노래공부, Recreation, Field-Trip등을 실시했다.

유치부로 부터 중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가진 이번 모임엔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고등부는 100 Huntly Club TV에 견학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기독학자회 창립

9일 한인교회에서

한인기독학자회 창립총회및 토론회가 오는 9일 한인교회(69 William St, Weston)에서 열린다.

총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패널식토론회는 "이민교회와 가정생활"이라는 주제하에 한국인의 의식구조, 여성위치, 청년문화, 노인문제, 이민교회목회, 기독교가정 결혼관등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한편 이날의 주제강연으로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함성국박사(북미기독학자회장, 구약학)가 담당한다.

토론회 후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조직과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모임의 준비위원은 김회섭박사, 박희민박사, 김상호박사이다.

한글·영어교육 강화

토론토감리교회

토론토감리교회(담임목사 박춘하)는 이달부터 교회학교 진흥책의 일환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여 실시한다.

한국어 강화를 위해서 3개 한글어반을 증설하는 한편 영어예배 정착을 위해서 카나다 연합교회 총본부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는 Panela Pole여사를 전임으로 초청하여 교회학교 교육을 전담시키고 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포올여사는,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유익한 기회이며, 한국이민 교회의 자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교회학교 한글반은 매주 오후 1시, 영어예배및 Activity는 2시에서 4시까지 이다.

지상설교 「수수께끼」

최상봉목사 (벧엘교회 목사)

(성경 : 시편90-12)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 신화에 Sphinx가 묻는 수수께끼가 있다. 상반신은 여자모습을 하고 하반신을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양을 한 괴물인데, 이것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묻는다.

아침에는 네발로 걸어 다니고 낮에는 두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나그네가 정답을 하면 살려주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곤 했다.

이 수수께기의 정답은 물론 "사람"이다. 적어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고 이 괴물은 생각했던 모양이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다. 365일에 꼭 하나만 먹는 것인데, 부자라고 더 많이 먹을수 없고 가난하다고 덜 먹는 것이 아닌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만 먹는 것, 그 답은 물론 "나이"이다.

그런데 한살이라는 나이의 의미도 사람에 따라 구구각각 이다.

꼭같이 한살을 먹는데 큰손자 첫돐 맞는집의 기쁨은 대단하다. 또 졸업하는 학생의 마음은 그렇게 신날수 없다.

잔칫날 받아 놓은 노총각의 가슴은 뛰고 설레인다. 그러나 LEASE가 끝나는 스토아(Store)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도 않다.

진갑을 맞는 이민온 홀어머님의 가슴은 말 못하게 허전하다. 도대체 "나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는 이 수수께끼를 풀라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질문했다.

나무에 있어서 나이테란 크고 튼튼한 재목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질과 양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가축에 있어서 나이란 무엇일까?

개는 나이가 들어 주인을 알아보고 집을 지킨다. 돼지는 갈수록 무게가 나가고 새끼도 낳는다. 소는 나이를 먹어 밭을 갈고 짐을 나른다.

동물에 있어서 나이는 양적인 성장과 주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광물의 나이는 어떨까?

신생대에 땅에 묻힌 나무는 토탄이 된다. 고생대에 묻힌 나무는 석탄이 된다. 땅속에서 오래동안 묻혔던 나무는 탄화작용을 해서 원유, 석유가 된다.

광물의 나이는 많아 질수록 가치있고, 귀하고 쓸모있는 것이 된다.

물론 인간의 나이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나이도 물량적인 성장과 질적성장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는 태아의 열달이라는 나이는 물량적인 성장외에 또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열달동안에 태중의 세계에서는 눈, 손, 발, 입, 귀같은 귀중한 지체를 하나하나 갖춘다.

즉, 태중의 열달이라는 나이는 제2의 세계, 다음 세계에서 필요한 기관과 지체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나이에만 다음 세계를 향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모태에서 70 혹은, 80의 나이를 먹으며 자란다. 그리고는 언젠가 다음 세계로 제3의 이민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성서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 다음 세계를 위한 속성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민 역사의 시금석이며, 성공과 실패의 척도이다. 이 준비를 나이가 갈수록 잘하는 자는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한 학생이 선생앞에 나아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내 주신 종이에 잉크가 떨어져 못쓰게 되었읍니다" 선생님은 깨끗한 새 종이를 내 주고 미소지으며 말하였다.

"여기에 더 잘 그려보렴"

그날밤 선생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 시간을 더럽히고 구겨 버렸읍니다" 기도하였다.

이에 하나님을 새날을 주시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일은 더 잘살아보렴"(최효섭 작품중에서)

이민의 나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잘 그려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새 종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새 기회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십자가에 담겨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십자가의 수수께끼를 풀으며 살아야 한다.

구독신청
533-2361

종 교 서 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 액사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교 회 안 내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 · 성가집 · 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Weston (at Eglinton Ave, W.) M9P 3A8	742-7010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L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안상엽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R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연합교회 (United Church)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태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922-3863 (복음다이알)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9: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423-9880 복음다이알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245-4980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 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 783-5881 (204) 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한인연합펜티코스탈	안하현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기타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옥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 11:00 평일기도 오후 2:00 토요집회 오후 2:00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onto M4E 3L7	698-536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오래살려면 아이슬랜드로 가라"

유엔인구연감 나라별 수명통계 발표

(유엔본부)세계에서 장수하는 민족은 아이슬랜드국민인 것으로 유엔통계에서 드러났다.

최근 발행된 유엔의 81년도 인구통계 연감에 따르면, 아이슬랜드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9.7세, 여자가 73.7세이다.

캐나다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더 길어 77.5세, 남자는 이보다 7년이 더 짧은 70.2세이다.

유엔 인구 연감은 인구분포도등 각종 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 81년중반 현재 세계인구는 45억이며, 이는 80년 중반보다 7천6백만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여성들이 최장수 수명을 누리는 5개국가는, 노르웨이(79.0세), 네델란드(78.9세), 일본과 스웨덴(78.8세), 페로·아일랜즈(The Faeroe Islands)(78.7세)이다.

남성장수 국가로는 일본(73.3세), 스웨덴(72.8세), 네델란드(72.4세), 노르웨이(72.3세), 이스라엘(72.1세)의 순으로 꼽힌다.

연감에 나타난 중요통계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50년이하의 수명을 누리는 국가는 총 47개국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이다.

▲가장 출생률이 높은 10개 국가도 모두 아프라카에 속한다.

케냐의 경우 1천명당 53.8건의 출생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여성의 출산연령분포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가장 출산율 낮은 국가는 서유럽제국으로 노르웨이가 1천명당 12.8건으로 최저이다.

세계 평균출생률은 75년에서 80년사이에 1천명당 29건이었다.

▲25개의 인구최다국가가 세계 인구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출생률 저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출생률은 60~65년의 1천명당 33.8건에서, 75~80년에는 1천명당 21.3건으로 줄었다.

마가렛·트루도에 새애인

부동산회사 사장

◆트루도 여사

별거중인 트루도 수상의 부인 마가렛·트루도(34)의 애인이 바뀌었다.

새 애인은 부동산업자인 센추리21 캠퍼·리얼리티(Century 21 Kemper Reality)회사의 사장인 프라이드·캠퍼(33)씨.

오타와 발, UPC통신은 31일 CJOH-TV의 모닝·매가진 프로그램 공동사회자인 트루도여사와 캠퍼씨가 지난 두달동안 사귀어 왔다고 보도했다.

77년 트루도수상과 별거한 트루도여사는 지난2년간 지미·존슨이라는 비지네스·맨과 동거해왔다.

UPC통신에 의하면 트루도여사는 새 애인을 "정직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현실적인 사람"이며,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두사람은 지난1월중 친구의 소개로 만났으며, 두사람과 수상관저에서 가까운 오타와의 뉴·엔딘버러 지역에서 살고 있다.

◆윌리엄·홀덴과 공연한 영화 선셋·불루바드에서의 글로리아·스완슨.

「한국특집」시리즈

—— 타코마지 ——

〈시애틀지사〉타코마지역의 유일한 일간지 「타코마뉴스트리뷴」지가 지난 20일부터 5회에걸쳐 게재한 한인컴뮤니티특집시리즈는 현지 교포들의 반감을 사고있다.

이신문은 「한국인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타코마지역한인사회를 보도, 한인들의 위장결혼과 퇴폐업소운영등을 소개하면서 『결혼이 미국행티켓』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포들은 『한인사회에 대한 편견』이라고 주장 『미국사회에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는 연재물』이라고 항의했다.

글로리아·스완슨 사망

무성영화시대의 여왕

(뉴욕)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룬 미국배우 글로리아·스완슨씨가 84세를 일기로 4일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무성영화시대에서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한 스완슨여사는 4피트11인치의 작은 키에 크고 푸른 두눈으로 영화팬들을 사로잡아 한때는 세계여성들이 그녀의 턱에 난 사마귀를 본따게 만들게도 했었다.

명감독 세실·데밀과 많은 작품을 만든 그녀는 1918년부터 29년사이에 8백만달러를 벌어 그돈을 다 써버렸다는 일화가 있을만큼 화려한 여성으로서 한때는 1주에 1만여통의 펜레터를 받았고,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시사회에 수천관중이 몰리는 인기를 누렸다.

대표작으로는 선셋·불루바드(윌리엄·홀덴과 공연), 〈Beyond the Rocks〉(루돌프·발렌티노와 공연)등이 있다.

캐네디안 호응

〈1면에서 계속〉

인터시티·뉴스에 앞서 10여개 외국인업체도 경품 및 찬조금을 내놓았다. 코카콜라는 1,500달러 현금외에 「미스·코리아」 진에 1년간 무제한 무료 음료권, 프리토·레이(Frito-Lay) 칩스회사는 1,000달러, 이민변호사 멘델·그린씨 1,000달러, 칩스회사인 호스테스(Hostess)가 500달러, 우유제품회사 실버웃(Silverwood)사가 700달러를 내놓았으며, 이외에 일부업체가 상당한 액수를 내놓았다.

또한 캐나다모델양성학교중에서 최대규모인 엘러너·풀처(Eleanor Fulcher Ltd.)사에서도 이 학교에 다니는 한국계 학생들로 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소식을 전해듣고 스폰서가 될 수 없느냐고 문의해 왔다.

이같은 문의를 받고 윤위원장은 에리너·풀처학원을 5일 방문, 제니퍼·존스(Jennifer Jones) 카운셀러와 의견을 교환했다.

윤위원장에 따르면, 존스씨는 「미스·코리아」 진과 선 2명에게 1,550달러의 모델학교 수업료 전액을, 이외에 「진」에게 1주코스의 모델훈련소 입소비 850달러를 면제해주고, 참가자전원에게 출전당일 화장을 해주겠다고 1차적으로 제의해 왔다면서, 금주중에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3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 풀처사는, 토론토에 없는 5개 모델·스쿨중에서 가장 크며, 학생수는 무려 2,500명, 이중 한국계 학생이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씨 역시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이 되고 싶다고 자청, 주최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미 확정된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 부인등 모두 3명의 캐네디언 여성이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할 것 같다.

◆섹시·스프링을 연출할 베어·백(BARE BAGK)스타일들. 들어난 등을 격자무늬로 디자인한 의상들이 올봄에 많이 선보이고 있다.

"섹시·스프링" 올봄의 衣裳

날씬한 스커트에 잔등훤히 들어나고….

올봄은 섹시·스프링(Sexy Spring)이 될것 같다는 의상전문가들의 이야기.

허리가 들어간 긴 자켓, 속넓은 벨트, 그와 대조적으로 날씬한 스커트.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봄의 핫·포인트는 잔등이 훤히 들어난다.

잔등은 척추의 균형이 잡히면 더욱 매력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

「미국여성들은 신체균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해왔지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때가 된 것예요」라고 말나는 디자이너 윌리·스미스는 「심플한 드레스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고 덧붙인다.

등이 들어난 의상중에도 베어·백·홀터 스타일(Bare-back halter 어깨에 끈이 달리고 잔등과 팔이 노출된 스타일)이 가장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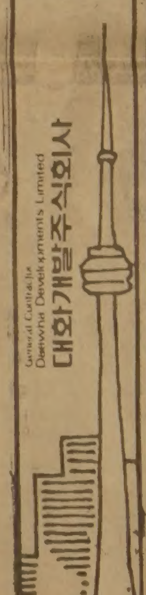
이유는 어깨의 끈이 목주위에서 묶어짐으로 인해, 가슴을 보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기인 것은 격자무늬사이로 등이 들어나 보이는 것, 어깨부분에만 약간 촘촘히 들어간 것도 있고, 등을 넓게 파서 큼직큼직하게 엮은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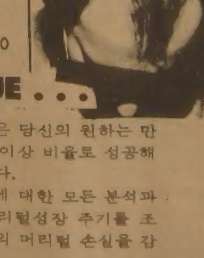
이 격자무늬는 대부분 우아하고 매력적인 드레스에 많이 디자인되어 있지만, 발랄한 T셔츠에도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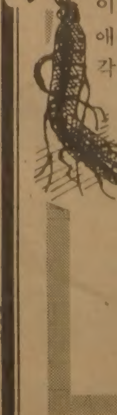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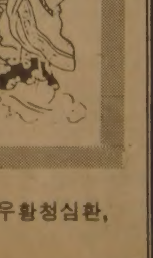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 사 및 성 화 초 상 화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오전11시~오후8시
▲ (토):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8 537-3104

〈국제한약상사〉
이 전 개 업

금번 쥬이시 시장안에 국제한약상사(전 안강용한약방)를 설립하고, 이전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애용 있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작년 1달간 사업관계로 중공을 방문, 각종 한약재를 직수입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 호 권 배상

— 각종 한약재 도산매(도매, 소매) 전문점
- 원로 중국 한의사 초빙코 봉사.
〈개업일자〉 2월23일(수)부터
〈장 소〉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시영파킹장앞)
〈전 화〉 (B) 593-5238 (R) 759-4012
〈영업시간〉 월~토: 오전 10시~오후 8시
★SPECIAL 각종 보약재 10~15% 할인
진품웅담, 길림산 녹용, 해구신, 호구신, 우황청심환, 사향, 각종 보약재등…。

O'INCHON RESTAURANT
오'인천식당
아늑한 분위기, 고향의 멋과 정감이 깃든 오'인천. 가족, 벗, 다정한 연인들과 YONGE ST. 를 거닐면서 ROSEDALE SUBWAY를 이용하시어, 함께 들려 주세요.

□한식, 일본식, 양식, 주류일절취급
1112 YONGE ST.
☎921-4468 박승홍
●자격증 소유한 요리사 구함.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1층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財閥 업무용 不動産투자 主去來銀 승인받아야

문어발식확장등 강력規制

협정어기면 行長문책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기업확장과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위해 재무구조가 나쁜 재벌그룹이나 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그리고 지난 80년의 9·27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계열기업처분을 명령받은 26개 재벌그룹은 기업의 신설, 매입, 출자및 부동산취득을 엄격하게 규제할 방침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투자는 일체 금지하고 업무용부동산투자도 주거래은행의 엄격한심사를 받게하여 업무용을 가장한 부동산투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1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이를위해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개정, 재벌그룹, 혹은 대기업이 기업을신설,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모두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협정을 엄격하게 이행하지않으면 은행장을 문책키로했다.

9·27조처에 따르면 現代, 三星, 大宇, 럭키등 대재벌 26개그룹이 모두 계열기업정리대상에 들어갔고 여신관리협정에따르면 1백40개 계열기업군(재벌그룹) 중 42개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나머지 98개계열기업군이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등 재벌이 영토확장을 할수없게시리 되어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42개계열기업군중 대재벌은 現代와 럭키밖에없고 나머지는 모두 군소재벌이기 때문에 9·27조처와 여신관리협정에 따르면 이름있는대재벌은 기업의신설이나 다른 기업의 인수 혹은 부동산투자를 할수가없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벌의 은행주매입은 말할것도 없고 現代 그룹의 전자업체신설, 롯데그룹의 産銀부지 매입, 大宇그룹의 大韓電線인수나 三寶증권 인수, 三星의 조선호텔 매입등이 모두 9·27조처아니면 여신관리협정에 걸리게 되어있으나 2개의조처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됨으로써 재벌의문어발식확장과 부동산 투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자 작년연말께부터는 재벌들이 업무용부동산이라는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빌딩신축에 열을올려부동산투기를부채질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거래은행여신관리협정 22조를개정, 기업확장이나 부동산투자를 제한하는규정을 더욱 엄격히 함과아울러 재무구조가나쁘거나 기업정상화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이 기업신설매입또는 출자를하거나 부동산투자를할때에는 모두 주거래은행운용협의회의사전승인을 얻도록하고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를통해 투자승인을 잘못하면 은행장및 경영진을문책할방침이다.

"對話에 즉각 응하라"

孫통일원 北에 「代表회의」 촉구

◇全斗煥대통령은 1일새벽 大邱의 전통적인 염색공업공단지역을 돌아보고있다.

孫在植통일원장관은 1일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개최를 촉구하는 對北성명을발표, 『지난2월1일 행한 우리측의 제의가 계속 有效하다』고 밝히고 『北韓측이 회담장에 나오기만한다면 언제든지 그들과마주앉아 모든문제를 기탄없이 협의할것』이라고 말했다.

孫장관은 『北韓측은 우리측의 새로운 대화제의가 나간지 두달이넘도록, 또 우리가 희망했던 예비회담개최시가(3월末)가 다지난 이날까지 긍정적인 회답을 보내오지않아 南北대화에대한 무성의한자세를 다시한번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성명은 또 『이번에 우리측이내놓은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가 지금까지 北韓측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왔던 「南北協商」형태까지도 受容한것이므로 더이상 다른조건을 붙이거나 이에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전제, 『이기회에 최근北韓측이 취하고있는 대화거부태도와 일련의 도발적이며 反民族的인 처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온겨레의 이름으로 그들의각성을 촉구하지 않을수없다』고말했다.

이성명은 『최근 北韓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가 나간직후 北韓全域에 「準戰時상태」를 선포하고 南北韓관계를 오히려 긴장시키고 있을뿐만아니라 금년가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된 국제의회연맹총회를 온갖 수단과방법을 동원해 방해하려는 反민족적인 책동을 자행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孫장관은 이날 三淸洞 대화사무국에서 對北성명을 발표한후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北傀는 서울서 개최키로 되있는 국제의회연맹총회를 제3의장소로 변경시키려고 외교적술책을 쓰고있고 美洲지역에 제2의 朝總聯을 만들기위한 공작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不正腐敗 꼭 추방해야"

全대통령, 慶北道순시

【大邱=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1일 『물가안정, 경제성장등 각 분야에걸쳐 작년에 이룩한 성과를 교훈삼아 올해도 계속 노력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고 우리의 국가목표인 선진조국창조도 앞당길수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慶北도청을 순시, 鄭採鎬 지사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것은 선진국進入의 요체이므로 어려운일이지만 금년에 꼭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해야하며 그렇게되면 바로 선진국으로 뛰어오를수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물가안정을 이룩하기위한 내실있는 경제교육의 확대를 거듭강조하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각급교육기관과 반상회를 통해 국산품 애용과 저축의 필요성등 경제교육과 질서교육을 「그수준에 맞게끔실시해 나가도록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北傀의 도발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慶北은 海岸線이 길고 지역이 넓기때문에 모든조직의 활성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주민신고체제의 확립등을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琴湖江오염 막도록"

大邱市廳서 강조

【大邱】 全斗煥대통령은 31일 『北韓의 체제나 주민들의 사상무장이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는 허점이많고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분석결과 밝혀졌다』고 말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북한공산집단의 도발획책을 말살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大邱시청을순시, 李相熙시장으로부터 보고를받은뒤 이같이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大邱의琴湖江에 물고기가 살수있도록 水質오염방지를 위해 汎시민적인 노력을하도록 당부하고 大邱市의 食水難해결을 위해 管井·지하수개발에 힘쓸것, 大邱지역 섬유공업 육성을위해 염색가공기술지도와 老朽기계 代替등을 적극 추진할것, 景氣부양을 위해 有關기관 관련사업도 모두早期發注토록 할것등을 지시했다.

染色工團도 순시

【大邱】 全斗煥대통령은 1일새벽 大邱市의 染色공업工團일대를 1시간30분간에 걸쳐 돌아보고 공단관계자및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7시 李相熙大邱시장의 안내로 大邱市飛山洞에 있는 染色공업공단일대를 승용차로 둘러본뒤 공단관리사무소에 들러 연구실과 기계실을 살펴보았다.

베트남軍·크메르루지 게릴라 泰國接境서 계속對峙

【방콕·워싱턴=聯合】 지난31일새벽 캄보디아北西 베트남군이 태국접경지역에 있는 크메르루지게릴라거점에대한 대공세를 펴므로써 야기된베트남군과 크메르루지게릴라들과의전투는 하루가지난 1일 소강상태를 유지하며 접경지역에서 대치중이다.

태국군장교들은 이번의 전투행위가 캄보디아서쪽에 있는 포이페트와 시소폰을잇는 5번고속도로 주변에서 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태국국경을 넘어들어간 난민수는 1만5천여명에 이르고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들은 또 크메르루지게릴라들이 베트남군의 공격을 완화시키기위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군과 한때 접전을벌인것으로 알려진 태국군 최고사령관 사이유드·케르드폴장군은 1일 기자들에게 이번의 사태에 관계없이 오는18일 실시예정인 태국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될것이라고 강조했다.

泰, 캄難民학살비난

【방콕=聯合】 타이국가안보위원회(NSC)는 31일 베트남군이 타이와의 접경지역부근에 위치한 캄보디아난민촌에대해 「야만적인」공격을자행, 수많은 캄보디아양민들을 살상했다고강력히비난했다.

◇家族을 기다리며 애태우는 폐허속의 어린이

31일 6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콜롬비아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집의 흙더미위에 한 어린이가 주저앉아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포파얀(콜롬비아) 31日AP電=聯合】

百濟 4面石佛 첫발견

충남禮山서 높이3m、위폭1·2m

◇충남 禮山郡 花田里에서 百濟것으로는 처음 발견된 4면석불. 사진은 北面 如來坐像이고 南面은 立像으로 돼있다.

百濟시대의 국보급 四面石佛이 충남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속칭 佛堂谷에서 최근 발견됐다. 4면석불은 新羅지역에서만 4~5기가 나왔을뿐 百濟지역에서 발견된것은 처음있는일이다.

높이3m 위폭1·2 아래폭 1·4m인 花田里4면석불은 해발70m 야산 중간에 웃면만 약간드러난채 묻혀있는데 지난3월15일주민들이 이사실을公州·扶餘박물관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됐다. 박물관팀의조사결과 밝혀드러난 부분은 마모가 심한 상태이나 땅에 묻힌 南北면은 如來立像과 坐像의 조각이 비교적 선명했다. 또바닥면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지만 보존상태가 훨씬 좋을것으로 보고있다.

국립중앙박물관 鄭良謨학예연구실장은 불상光背의 연꽃무늬와 그 주위의 방사선무늬 양어깨에 걸친 法衣와 가슴의 매듭고리 V자모양내의(僧加梨) 등이 이미 百濟불상으로 알려져있는 瑞山마애3존불(국보84호) 泰安마애3존불(보물432호)과 똑같은 양식이라고밝히고 이로미루어 백제말기(7세기중엽) 의불상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 鄭실장은 3국시대의가장오래된 4방불은 慶州南山골의 神印寺址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과 같은 시기인 7세기 중엽 百濟4방불의 발견으로 석조불상과 한국조각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되었다고 말했다.

四方佛은 원래 중국의 東西魏(534~550년) 北齊·周(550~581년)에서 조성되기 시작, 隋·唐대에 널리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따라서 이번 百濟4면석불의 발견은 일본 아스까(飛鳥) 고분의 4면불상이 백제로부터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되고있다.

오늘3黨 총무회담

임시國會 일정논의

民正·民韓·국민등3黨총무는 2일상오 총무회담을갖고 오는11일소집되는 제1백16회 임시국회會期와 議題및 의사일정등을 논의한다.

民正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11대국회후반기를 이끌어갈 正·副議長및 상임위원장을 선출, 새로운 院구성을 마친후 상임위활동을벌여 油價인하문제등 현안문제와 일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社会漫評

億./億./億時代…

地平線

대학의 超巨大化 현상은 지금 구미선진국들 마저 심각한 위기감에젖게하고있다. 여러가지 학문을 하나로 통일해온 유니버시티의 기능은 날로 쇠퇴해지고 그 통합원리를 상실한채 멀티버시티 (multiversity)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점점 대중화, 기계화, 세속화하는 대학엔 쌀알같이 原子化한 군상만이 보이는 것 같다. 미국 코넬대학의 퍼킨스총장은 이 현실을 「恐龍의 운명」에다 비유해 보기까지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는 현대인의 당당한 福祉權의 하나다. 시민의식의 개발로 교육·보건·주택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시민의 권리로 인식 되었고, 이 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社會權, 즉 福祉權이 전개된 것이라고 런던大교수 지낸 T·H 마셜은 분석했다. 복지권으로서의 교육은 문화적인 환경의 보장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교교육엔 엄청난 국가적 투자가 언제나 절실하다.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니 급조된 캠퍼스. 그뿐이랴, 서점이나 휴식처등 부대시설이 全無한 대학촌」, 어제아침 한국일보 사회면 머릿기사의 첫귀절을 읽으면 나간각한 생각이 든다. 이것이 수도권지역대학 분교의 숨김없는 실상이다. 대부분 서울에서 통학하는 재학생수가 7만명에 달한다니 그「환경」 문제를 가볍게 덮어둘일이 아니다. 기숙사입사는 바늘구멍 같고 하숙도 하늘의 별따기라한다. ▼일부사립대의 지방분교가 세워지기 시작한것은 지난 78년부터다. 서울의 인구분산과 지방문화의 육성을위해서란는 취지였다. 지금의 현상은 취지와 결과가 따로따로가 된 셈이라고 하겠다. 1시간 넘어 걸리는 「通學苦」에다 어수선한 주변환경이 면학의지를 시들게 할 형편이다. 주변 땅값만 올렸지, 비교육적인 유흥가로 탈바꿈한다는 개탄은 귀담아 들어야 옳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을때가 아닌것 같다. 저절로 되어가는것은 자연뿐이다. 일찍기 칼라일은 「대학은 도서관이 있는곳」이라고 말했다. 여기 하나더 보태 대학은 「문화의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 말하고 싶다. 대학의 恐龍化는 없어야 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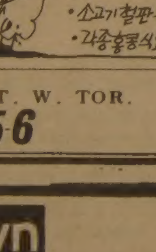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한구
☎ : 247-7161
1575 WESTON RD.

심령부흥회

(서울 시온장로교회 목사)
□강사·김형태목사
□시일·4월21일(목)부터 24일(주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7시30분(목·금·토·주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장소 : 한인오순절장로교회당
754 INDIAN RD. TOR. ONT.
□연락전화·245-4770, 651-4621, 762-1495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콜롬비아에 強震 3백명이상 慘死

強度7… 滿員교회 폭삭

千2백명 負傷

【보고타 (콜롬비아) UPI·AP=聯合】콜롬비아 西南部의 포파얀市에서 31일 상오8시20분(한국시간 밤10시20분) 리히터지진계로 강도7을 기록한 콜롬비아사상 최악의 強震이 발생, 부활절을 앞두고 신도들로 가득찬 성당과 교회등이 무너지는바람에 3백명이상이 숨지고 1천2백명이 부상했다고 콜롬비아 적십자사가 추정했다.

경찰은 앞서 이번지진으로 포파얀시에서 최소한 4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했으며 인근 피엔다모와 카지비오등에서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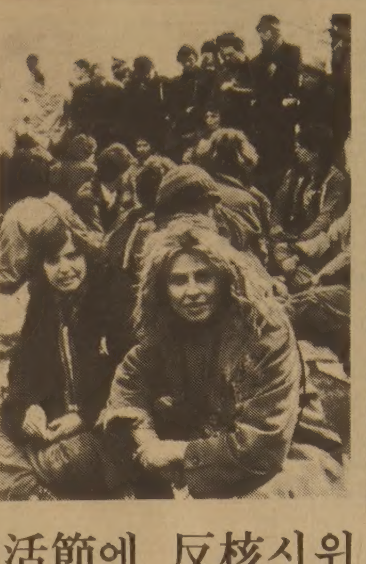
포파얀시의 사무엘·실베리오·부이트라고 대주교는 라디오방송을통해 부활절 예배들로 가득찬 포파얀 성당과 산토·도밍고 교회가 무너지는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다고 밝히고 40구의 시체를 발굴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신도들이 무너진 건물속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으로 인구20만명의 포파얀市가 성당·교회이외에도 시청·관공서·전신전화국건물등이 크게 파괴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벨리사리오·베탄쿠르 대통령은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포파얀市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포, 부상자와 이재민에게 의료품과 구호물품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푸라세火山근처에 위치한 포파얀市지역에서는 지난 79년11월에도 지진이 강타, 50여명이 사망했었다.

한편 칠레수도 산티아고의 지진연구소는 산티아고에서도 리히터지진계로 강도 2~3도의 微震이 감지됐으며 진앙은 산티아고 동북쪽60㎞의 안데스산맥이라고 밝혔다.



◇數千名의 反核데모、女優크리스티양도 함께 여우 줄리·크리스티양(왼)이 31일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생산할 예정인 英國 버필트병기공장밖에서 일단의 데모대와함께 시위를 벌이고있다. 【니어리딩 (英國) 1日 UPI聯合=聯合】

復活節에 反核시위

英서 數千명참가 3일간

【런던=AP聯合】수천명에 달하는 영국의 反核시위군중들이 31일 런던 西部 그린햄·커먼에있는 美空軍기지와 버그필드에 있는 비밀核무기 공장의 입구를 봉쇄하는것을 시발로 3일간의 부활절 反核시위운동에 돌입했다.

核무장해제운동(CND)등 일단의 反核운동단체들의 주도하에 벌어진 이날 시위에서 군중들은 금년12월 1백60基의 美製순항미사일이 배치될 예정으로있는 그린햄·커먼 美空軍기지의 입구를 봉쇄하고 反核구호를 외치며 核무기의 영국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수백명의 여성 시위군중들도 이날 그린햄·커먼기지의 8개의 정문앞에 모여앉아 연좌농성을 벌였다.

또한 버그필드에있는 核무기공장근처에서도 수백명의 시위군중들이 反核운동노래를 부르면서 36시간의 연좌농성에 돌입했는데 復活節을 계기로 벌어진 이번 反核시위는 1일 약 4만여명의 군중들이 참가, 버그필드와 그린햄·커먼基地간의 24㎞의 거리를 「人間체인」으로 연결함으로써 절정에 달하게 된다.

사우디 產油量 감산

하루 2백만배럴線、평소의 절반

【뉴욕UPI=聯合】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최대 產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산유량을 하루 최저 2백만배럴線까지 낮추고있다고 中東문제전문통신인 미드이스트·리포트가 31일 보도했다.

미드이스트·리포트는 사우디의 소식통들을 인용, 앞서 하루 산유량이 4백만배럴미만임을 시인한바있는 사우디가 현재 하루 2백만배럴을 생산하고있다고 말했는데 사우디는 지난81년초 하루평균 1천만배럴 이상을 생산했었다.

미드이스트·리포트는 또 사우디 석유의 약97%를 생산하고있는 아람코社가 현재 사우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1천~2천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약6만명을 고용하고있는 아람코社가 대부분 미국인피고용인들을 해고, 사우디人들로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랍「ADF」解體 레바논관계도 끊어

【베이루트AP·UPI=聯合】레바논정부는 레바논주둔 시리아軍의 합법적근거였던 아랍평화유지군(ADF)을 공식해체하고 ADF와의 모든관계를 단절하는 한편 ADF사령부와 장비를 인수했다고 레바논관영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군사소식통들을 인용, 레바논軍이 ADF사령부와 장비를 인수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ADF해체를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蘇外交官 2명·특파원 1명 出國令

英, 間諜활동 혐의 "1週內 떠나라"

【런던=聯合】영국정부는31일 소련외교관2명과 1명의 특파원에 대해 그들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한 혐의로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영국외무성이 이날 밝혔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국명령을 받은 소련외교관은 런던주재 소련대사관의 공군무관 겐나디·프리마코프대령과 2등서기관 세르게이·이바노프라고 전했다.

이 성명은 또 소련주간지 「新時代」의 런던주재 특파원인 이고르·V·티토프기자가 「용납할수없는 활동」에 관련됐음이 밝혀졌다면서 그가 1주일내 영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챌린저號 惡天候로 4일發射 지연우려

【케이프카내베랄 (美플로리다州) UPI=聯合】두번째 美유인우주왕복선 챌린저號는 오는4일 오후1시30분(현지시간) 1차비행발사를 앞두고 31일 이틀째 순조로운 카운트다운을 계속하고있으나 관계자들은 날씨때문에 발사가 지연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있다.

돈·필립발사시험책임자는 악천후로 인해 발사연기가 불가피할경우 챌린저號의 발사는 5일하오 1시30분으로 재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外信 안테나

레이건, 蘇 핵무기減縮수준 公開촉구

잠정妥協案 거듭강조 "協商 성의를"

【로스앤젤레스AP·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31일 소련에 대해 유럽배치 핵무기감축협상을 촉진하기위해 그들의 핵무기를 어느수준까지 감축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세계문제협의회 회의에서 연설을통해 美國과 소련의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을 동등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자신의 잠정타협안을 거듭 강조하고 소련은 미국측의 잠정타협안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말했다.

韓·日공동 經濟委 6일 서울서會議

【東京UPI=聯合】제15차 韓日공동경제위원회 회의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양국경제계지도자 1백7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다고 日本위원회소식통들이 밝혔다. 이소식통들은 이번회의에서 한국은 전자및 고급기술분야에서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加州의 氣象異變은 太平洋 水溫변화탓

【라졸라(美캘리포니아州) AP=聯合】미국의 캘리포니아州를 강타하고 있는 폭풍우는 태평양의 전례없는 수온상승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수온상승현상은 대서양에까지 파급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미국의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있다.

이 수온상승현상은 지난해 5월부터 적도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시작됐다. 현재는 南아메리카에서 알래스카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필리핀군도까지 태평양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해역이 수온상승현상을 보이고있다.

中·蘇 20년만에 학생교환復活 합의

관계개선에 새信號…兩國 各10명씩

【北京UPI=聯合】중공과 소련은 학생교환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지난 20년이상 동안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

중공외교부 대변인은 31일 3월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中·蘇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학생교환계획에따라 양국이 각각 10명씩의 학생을 상대국에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社 說

4백만威勢의 存在性

—豫備軍15돌、挑發분쇄 期約하자

우리 鄕土예비군은 이미 4백만의 大軍勢다. 역사상 처음보는 거창한 규모와 체구를 지닌 「제2國軍」이라할수있다. 68년4월1일 창설된이래 불과 15년에 이런 防衛戰力體가 성장된것은 분명히 괄목적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발족이후의 그 業績은 모를 사람이 없을것이다. 후방으로 침투하려던 북괴의 무장간첩과 공비는 그앞에 맥을 못추었다. 침입자 70%이상이 예비군 그물에 걸려 섬멸되었고 그때문에 위축된 탓인지 근래는 공비및 간첩의 침입기도 마저 좀 뜸해진 것 같다.

국가방위와 안보에 이바지 하는 예비군의 기여도, 전략적 위치가 역연해진 현상이다.

이제 향토예비군의存在性에 이의를 붙이는 사람은 없다. 첫째는 빈틈없이 全國을 커버하고있는 향토방위·후방방위체로서 그 실적과 필요성에 누구나 공명하고 있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가운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경계나 방위상 요긴한 길목을 모두 지켜준다.

그방위활동을 연장하면서 둘째는 有事時의 戰力體로서 막강해진 존재성을 또한 과시하고있다.

만일 敵의 불장난이 있으면 豫備軍은 즉각 전선으로 투입될수있는 동원체제와 장비력·기동력·숙련도를 확실히 보유하게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速度戰에도 즉응할만한 임전 태세를 정비했을뿐아니라 아예 오래전부터 道단위 동원훈련·師團단위출동훈련을 거쳐 팀스피리트 韓美聯合군사演習에도 빠짐없이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세째는 예비군이 우리 自主國防체제 발전의 방대한 기반으로 차지할 항구적지위를 굳혀가지 않을수 없게한다. 그 汎國民的 防衛性, 광역화한 방비망, 正規·非正規 양면전에 대응할수있는 적응성, 날로 精銳化하는 발전추세, 그러면서도 軍勢에 비해 아주 經濟的인 유지효과등은 自衛上 영속시켜야할 民防衛제도의 발전된 형태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에 보태 예비군은 나라의 우수한 靑·壯年층을 거의 망라한 강대한 社會의 中樞勢化 하였다. 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先進化의 견인력으로서, 건전한 국민성향의 향도력으로서, 社會운영과 연관된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안팎으로 비쳐진 예비군의 이런 실상은 확실히 놀랍다. 하지만 그에 만족하거나 자만할수 없는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며칠전 安保政策회의의 판단과 어느 공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全斗煥대통령의 지시를 보면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의 서울 개최를 방해하기위해 北韓집단이 올해안에 특수부대를 투입, 긴장 교란 폭력도발을 꾀하려 들 가능성은 가장 높다는 것이다.

비단 특수부대뿐아니라 저들의 「노농적위대」도 정규부대와 같은 무장과 전투준비를 끝낸지 오래다. 멀고 가까운 바깥세계의 情勢역시 전쟁·분쟁·테러사태가 도처에서 일고있는 현황이다.

줄여말하면 防衛虛點은 추호라도 있어선 안될 우리들의 처지인것이다. 예비군의 전력화·정예화·총력방위태세는 그래서 더욱 서둘러져야 한다. 장비보강 교육훈련 조직편성 정신자세등 모든 면에서 내실성을 더 다잡아야 할것으로 보겠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예비군 訓鍊혁신및 紀綱확립의해」로 정해져 어제부터 사고자들의 자진신고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옥에 티마저 없애려는 조치며 캠페인이라 할것이다.

이땅에서 예견되는 앞으로의 전쟁이나 敵의도발은 반드시 奇襲·동시다발·전후방없는 戰線의 형태로 비롯될 것이다. 이 경우 가장 효과적인 억제및 대처방책이 예비군의 強化에 있음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

對話通路 빨리 터야

—北韓측의 姿勢是正 거듭 바란다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4월로 접어들면서 조국의 자연은 봄소식이 완연하건만, 南北을 가로막는 人工的 障壁은 얼어붙은 그대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있다.

때마침 孫在植 국토통일원장관은 1일 對北聲明文을발표, 「南北韓當局및 政黨·社會團體 代表會議」의 개최를 평양측에 거듭 촉구하였다. 지난 2월1일 北韓측에 대하여 「南北韓當局 최고책임자會談을 실현하는 문제」와 「平和的統一을위해 南北韓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위해 그같은 代表會議를 개최하되, 우선 3월중에 豫備會談을 열자고 제의 했었는데 아무런 회답도 없이 어언 두달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측의 그 제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統一念願에 비추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내용이다. 아울러 北韓측의 구태의연한 거부 反應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對話제의를 멈지 않아 했보게 하기 위하여 忍耐를 갖고 「할수있는 모든노력을 다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3개월간의 南北對話문제에 관한 공식발표를 대조할때 北韓측의 他意있고 무한 자세는 명백히 노정되었다고 보게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全斗煥대통령은 1.18國政演說을 통해 전제조건 없는 「南北韓當局 최고책임자會談」의 개최를 거듭 촉구한바 있다. 議題로는 緊張완화와 戰爭방지, 쌍방이 주장하는 모든 統一方案, 過當경쟁으로 인한 民族力量의 浪費방지, 平和統一에 유리한 國際的與件조성등을 모두 다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측은 그 직후 美軍철수만을 토의하는 「南北諸政黨·社會團體 연석회의」를 열자는 식의 일방적 排他的제의를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측은 2월1일 北韓측주장을 아량있게 포용하여 當局代表뿐만아니라 政黨·社會團體代表들도 함께 참석하는 對話의 廣場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北韓측은 그 이후 對話호응은 고사하고 팀스피리트 演習을 트집잡아 北韓 全域에 이른바 「準戰時狀態」를 선포하고 만것이다. 이같은 경위로 미루어 對話에 관한 쌍방의 是非曲折은 더 설명이 필요없겠다.

오늘의 南北관계는 北韓측의 意圖的인 緊張조화와 戰爭히스테리로 말미암아 一觸即發의 危機感마저 감돌게하는 실정이다. 北韓의 시대 착오적인 個人崇拜·權力世襲체제에 도사린 독재층은 아직도 武力赤化統一의 망상에 집착해 있는 꼴이다. 이른바 「南朝鮮革命」이라는 迷夢을 敎條삼아 同族相殘준비에만 골몰하고있는 실정이다.

본시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平和統一은 同族相殘의 예방을 기조로 民族的大家庭을 부활시켜 서로 和合하고 어울려 살자는 뜻이다. 그런데도 北韓독재층이 硬直化된 배타적 劃一性만을 추구한다는데서 심각한 근본문제를 되씹지 않을수 없다.

정녕 北韓측이 위장선전 아닌 民族的良心에 입각하여 平和統一을 희망한다면 개방적이고 포용력있는 方向設定으로 그들의 자세를 전환시켜야 마땅할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시급한것은 平和의 定着이다. 이를 위한 접촉과 對話에 北韓측이 하루속히 무조건 호응해야할 當爲性을 거듭 강조하여 마지않는다.

張吉山 <1706>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 第一章 彌勒 (166)

『대저 큰일을 도모함에는 대의명분이 없어서는 성사하지 못하는 법이거늘, 한양의 노비 몇사람과 백두의 상한 몇몇이서 양반을 죽여 포한을 갚자는 것이 어찌 명분이 되겠소. 그까 일이라면 이 말단 향임으로 밥 얻어먹고 사는 호명이가 진작에 혈기있는 아이들 모아 산간에 들어가 개호랑이 노릇이라두 하였겠소. 내가 아우 만일이를 보아 호젓 대접으로 술 한잔 내는 것이니 이 술 마시고 돌아가우』

정호명은 기개 있게 말하고는 단숨에 쭉 들이켰다. 정원태가 다시 잔을 채워주며 말하였다.

『그러면… 조칸는 이조가 이 땅에 가장 가합한 왕조로 일쑤되었다고 믿으시오?』

『가합치 않으면 어쩔 것이오? 승국(勝國)이오, 패국역(敗即逆)인 바에 이태조가 이미 고려를 패망시키고 대명(大明)에 복속하여 누백년의 사직을 누려오지 않았소?』

『명은 오랑캐인 청에게 중원을 내주고 패망하고 말았지요. 삼라만상이 그러하듯 나고 자라고 멸하는 이치인 고로 세상에 사람이 지은 것으로 세세무궁하는 것은 없는 법이외다. 더구나 전조가 퇴폐하고 늙고 병들어 망할 시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저 삼한 이래의 비원이던 요동과 부여의 옛 땅을 정벌하겠다던 최영의 뜻은 이태조의 회군으로 꺾였지요. 중원으로 향하던 웅비의 큰 뜻이 참 끝을 제 집 울안으로 돌린 자에 의하여 비굴한 신하의 속국으로 바뀐 것이오. 송도 덕물산에서 최장군의 원혼을 받들어 모시는 까닭은 다 그러한 백성들의 안타까움 때문이오. 우리도 덕물산 큰 굿에 가면 언제나 성계육(成桂肉)이라 하여 돼지 비계를 나누어 씹지요. 요사이 사대의 명분을 말하는 자들이 대명이 망했으니 북벌을 해야 한다고 저마다 주장들을 하나, 청이 관야에서 몸을 일으켜 후금으로 중원을 도모한 사실은 잊고 있소. 이제 양란을 겪고 수차례의 흉년을 치러 아조의 다스림에 도와 덕과 인의가 말라버렸음을 아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이 한숨도 안되는 사대부들에 놀려 살아 있으니 이는 천지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함과 같고 봇물 막힌 물줄기와 다름이 없으며 바람이 거꾸로 부는듯하오. 이를 바꾸어 천인의 나라를 이루어야 제자리가 이루어질 것이오. 우리 검계는 미륵의 도를 구하며, 미륵께서 세간에 나타나 놓실 자들의 도솔천을 이루어 주실 때를 준비하며, 드디어는 썩은 것과 낡은 것을 쓸어내고 용화세상을 이 땅에 세울 작정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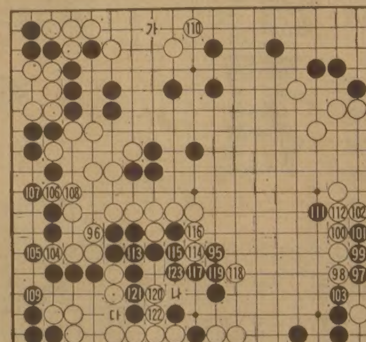
정호명은 원태의 말을 듣고 있더니 조용히 일어나 절하고 앉았다.

『소인이 견문이 없어서 큰 잘못을 저지를뻔 하였읍니다. 선생께서는 청컨대 저를 장수로 삼아 크게 써주십시오』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13局 第7譜 95~123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奉洙 〈2勝1敗〉
黑 (4段) 姜勳 〈2勝1敗〉



黑대마가 95까지 우선탈출에 성공하자 徐7단은 승부 白96으로 단수했다.

뭔가 큰 이변이 생길것같던 아래쪽 일종의 응수타진이다.

그러나 黑은 3점을 잇지않고 97로 실리를 취했다. 黑103까지는 필연.

白도 좌변을 104이하 108까지 선수하고 상변을 110에 모했다.

黑이 「가」로 치중하는 수를 예방하는 역 끝내기이다.

하기야 110은 113자리로 黑 3점을 따 내는것도 상당히 크지만 그것보다 선수끝내기로 마무리지어가면 승리는 확실하다고 계산했던 모양이다.

再燃된 攻防戰

姜4단은 白110쪽을 응수하려다가 마음을 고치더니 5분동안 생각한 끝에 黑111다음 黑113으로 3점을 이어갔다.

실리적으로 6집끝내기이며 또 어쩌면 중앙白대마를 공격하는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을것이다.

그렇지만 徐7단은 아래쪽 黑대마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것은 아니었다. 이바둑에서 가장 긴 38분을 생각한 白114는 과연 공격의 맥이었다.

그리고 이하 白122까지 미리 얽어둔대로 신랄한 공격을 퍼붓는다.

이렇게되면 姜4단도 오기가 안생길수없다. 黑123은 「나」쪽에 호구하여 후수1집을 본것이며 정수지만 이렇게 이어놓아야 장차 「다」로 몰고 「라」쪽을 끊는수가 남는다. 말하자면 黑123은 승부수인데 과연 결과는? 【一凡】

땅끝에서 오다 <23>

金成一 作

뭔가 일어난다⑥

(가만있자…)

중요한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어제 공항에서 준호를 미행했던 베이지색 체이서가 누구차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분명히 이세원이 비행기를 타지않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낸다면 실마리는 그쪽에서부터 풀릴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차 넘버는…그렇다, 히도고로시 (殺人) 다!)

일본사람들은 재미있는 방법으로 넘버 외는 요령을 알고있었다. 일본 말로 숫자를 세는데는 이찌(一)、니(二)、산(三)、시(四)…와 히도쓰(하나)、후다쓰(둘)、밋쓰(셋)、욧쓰(넷)…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두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짤막한 말을 만드는 것이다. 후미이시 (2314…디딜돌)、이쓰메모미쓰우야로 (5389…언제라도 밀물합시다) 같은것으로 전화번호나 차 넘버 외는 데는 아주 편리한 것이었다. 준호가 기억해낸 고고노(556)히도고로시 (1564) 그것은 바로 「하오의 살인 (殺人)」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텔렉스실을 나오면서 일본인 사원 요꼬야마(橫山)를 불렀다.

『어이, 요꼬야마상, 내가 좀 특별히 부탁할 것이 있는데』

몸이 똥똥하고 키가 작은 요꼬야마가 볼펜을 든 채로 다가왔다. 보기엔 똥똥해도 건수만 잡으면 몹시 민첩해지는 사나이였다.

『이건 사실 회사일이기도한데…시나가와 (品川) 55노15-64의 넘버를 가진 베이지색 차 임자의 신원을 좀 알아봐 주겠어?』

『오케이。그 정도라면 나한테 맡기세요』

『그럼 부탁해』

지사장실에 들어 있던 부장 과장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책상 위에서 서류 몇가지를 챙겨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뒤따라서 지사장도 나오고 있었다.

『임대리! 파리 지사에 텔렉스 넣었나?』

『네, 지금 넣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에 전화 해서 어쨌든 오늘중으로 가져갈테니까 내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해 놓으라고 연락해』

『알겠읍니다』

『또…혹시 이부장이 서울에 있는가도 확인하고』

『네』

지사장은 부장 과장들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모두들 「X 프로젝트」의 서류 추진을 위한 출동이었다.

준호는 다시 텔렉스실로 들어가 키를 두들겼다. 날짜와 시간을 넣고 파리지사의 텔렉스 넘버를 넣었다. 잠시 기다리자 DF의 사인이 찍혔다. 신청한곳과 연결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키를 두들겨 나갔다.

—이세원부장은 도착하지않고 물건만 도착했음. 물건은 곧 처리하여 서울로 릴레이 하겠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까지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음. 이세원부장의 행방에 대해서 연락해주시기 바람. 여러분에게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동경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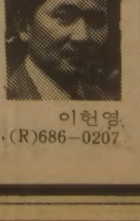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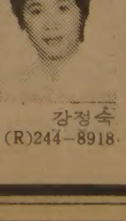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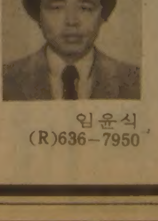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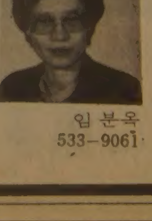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500 $12,000 $14,000(황용현)
  - Discount스토아(주6일) $7,000(임윤식)
  - Tuck Shop 주매상 $3,000 $5,000(임윤식)
  - Nut Shop 시간짧고 바쁜 쇼핑센타내 아스킹 $30,000(황용현)
- ●과일가게 년매상 $500,000이상, 프라쟈내(임윤식)
- ●Fish & Chip 주매상 $8,000 쇼핑센타내 아스킹 $279,000(황용현)
- ●건물달린 가게
  - 1)3 Bedroom 코너집, 빈가게자리, 가게꾸밀 분에 적합, $25,000 다운페이 가격 $165,000(황용현)
  - 2)주매상 $7,000 2-Bedroom아파트, 80,000다운페이 합계(가게+건물) $250,000(유웅복)
  - 3)주매상 $7,000 코너건물(서쪽지역) 가게와 건물 $330,000(황용현)
- ●꽃집: 다운타운 TTC주차장옆 27년된 꽃집, 짧은 시간(일요일 닫음) 아스킹 $45,000(황용현)
- ●투자용건물 1)한인상가에 있는 상용건물 $50,000 다운페이 $159,000 (황용현)
  - 2)영 Street선상 투자용건물, 건물 3동 ($200,000다운) 아스킹 1백만불 (황용현)
  - 3)버라이어티 건물달린 아파트, 다운페이 $30,000 아스킹 $95,000(유웅복)
- ●플라쟈 1)32 Unit apt, 11% 모게지 가격 $690,000(이헌영)
  - 2)4개의 Store $120,000(12% 모게지) 가격 $525,000(이헌영)
  - 3)16개 가게 년수입 $240,000 다운페이 $750,000 12% 모게지 $2,350,000(황용현)
  - 4)15개 가게 년수입 $120,000(11¼% 모게지) 가격 $1,350,000(유웅복)
- ●주택 1)돈밀×로렌스, 방갈로 3베드룸, 쇼핑센타근처, TTC 10¾% $129,000(유웅복)
  - 2)다운타운 타운하우스 3베드룸 13% interest 가격 $75,900(유웅복)
  - 3)윌슨×쉐파드, Split House 3베드룸 지하실 잘 꾸며진 교통편리 $145,000(임윤식)
- ●드라이크리닝: 연매상 7만불 스카브로 로케이숀, 훼밀리 비즈네스, 아스킹 $48,000(황용현)
- ●버라이어티: 주매상 $7,500 최상의 장소, 아스킹 $125,000(이헌영)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7-9395

共榮土建 빚 4천5백95億원

"5年거치 15년 나눠갚겠다"

상환方案마련…채권자集會에 내놓기로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과관련, 법정관리로 넘어간共榮토건 (법정관리인 禹在九 東海생명사장)은 1일 확정된 채권액을 갚아나가는 방안을마련,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9일상오10시 서울江南區瑞草洞 사법연수원대강당에서 제2, 3차 채권관계인 집회를열고 共榮토건이 마련한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리및 결의를 거칠 방침이다.

이채권정리계획안에 의하면 확정된 채권액 4천5백95억7백13만5천원을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돼있다.

또 87년까지 5년동안의 거치기간에는 물품대금 12억여원만 우선갚고 채권액은 일단동결시킨후 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간에 분할상환한다는 것이다.

분할상환방법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동안엔 개인채권(李·張어음채권) 1천88억4천4백50만원을 우선적으로 갚고 98년부터 나머지 5년동안 조세2백37억원, 담보채권1백2억원, 법인채권 8백19억원, 상업은행채권 3백88억원, 雙龍채권22억원등 모두 1천5백70억원을 갚아 나간다는것.

재판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3일 제1차 채권관계인집회를열고 채권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 4천8백53명으로부터 채권액 5천3백93억원이 신고됐었다.

이가운데 共榮토건에 의해 부인되거나 그동안 법원의허가로 변제되고 또는 소멸된 채권액을 제외한 共榮이 변제해야할 채권액은 4천5백95억7백13만5천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2, 3차 집회에서 共榮토건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채권관계인 3분의2이상의 찬성결의를 못받을경우 共榮토건에 대한 법정관리결정은 취소된다.

이렇게될경우 共榮토건의 채권액가운데 국세등 조세채권과 은행의 담보채권등이우선적으로 변제되기때문에 李·張어음을 소지한 일반 채권자들이 2, 3차집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年上동거여인 殺害 술집서… 40대 令狀

【江陵】 강릉경찰서는 1일 술집에서 술을마시고있는 동거여인을 흉기로찔러 숨지게한 최석규씨(44·강원도溟州郡 注文津邑 注文1里6班)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의처증이 심한 최씨는 1일 새벽0시20분께 강원도溟州郡 注文津邑 注文8里 망나니술집에서 혼자 술을마시고있던 이정우씨(50)의 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했다.【聯】

종합「法律會社」첫 登場

專門化·公益기능살려… 法人體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법률회사와 같은 「법무법인」1호가 탄생하게 됐다.

方順元(69) 桂昌業(67) 任恒準(64) 李光錫(67) 蔡明默씨(60)등 원로변호사 5명은 1일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대한변협을 경유, 법무부에 냈으며 법무부는 이를 금명간 인가할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호사들은 법인의명칭을 大洋종합법률사무소로 정하고 대표로 方변호사를선임했으며 법인정관도 마련했다.

변호사의 전문화와 공익기능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무법인제도는 지난1월1일 발효된 개정변호사법에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변호사들이법인화에 따른 과세자료노출등을 꺼려 참여를 기피해오다 이번에 1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관광객20%나 증가 慶州 외국인은줄고

【慶州】 지난1·4분기중 慶州를찾은 관광객은 지난해같은 기간의 48만8천92명보다 20%가 늘어난 58만3천5백86명으로 집계됐다.

1일 慶州지역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중 외국관광객수는 지난해 동기의 4만7천6백68명에비해 28%나 감소한3만6천9백33명이라는것.

한편 국립慶州박물관의 경우 올해관람자수는 13만1천3백4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2만4천3백49명보다 6%가 증가됐다.【聯】

武器소지 脫營兵 4시간만에 검거

1일 상오5시께 해군모부대소속 朴태석이병(21)이 M16소총1정과 실탄 15발을 갖고 부대를 이탈했다가 이날상오 8시50분께 군수색대에 의해 검거됐다.

朴이병은 이날 동초근무를 마친뒤 부대를 이탈했는데 인근 야산에 숨어있었다.

金玉吉 前이대총장 美國에 동생과함께

金玉吉이화여대 명예총장(62)이 미국 「뉴욕」의 「유니언」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유니언메달」을 받기위해 동생인 전연세대교수 金東吉씨(55)와 함께 31일 하오 미국으로 떠났다.

金명예총장은 이수여식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 여성의 역할」이란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金東吉씨는전도강연을 펼 계획이다.

서울市教委, 교육구청등 8개소에 「課外고발 접수처」設置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일부터 시교위와 7개교육구청등 모두 8개소에 과외고발 접수처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시교위는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과외현장을 단속하게된다.

반상회에 教師참석

경북教委, 학생僞裝전출 막게

【大邱】경북도교위는 학생들의 다른시도 전출을방지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처음으로 도내 전교원을 반상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1일 도교위에 따르면 자녀들의 교육을 교육여건이좋은 대도시에서 받게하기위해 위장전출으로 대구직할시등 다른시도로 전출한 수가 81학년도에 1만5천1백84명, 82학년도에 1만5천14명이었다는것.

이에따라 도교위는 각급교원들을 반상회에 참가시켜 지역주민들에게 학생들이 다른시도로 전출하면 불안감과고독감으로 부작용을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지적, 자녀의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위장전출을 삼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도교위는 지난 3월25일반상회에 龜尾市와 慶山郡교육청을 통해 4백80명의 교원을 시범적으로 참가시켜 경북교육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대학생 失踪 20일째

애인·친구 만나러 나간뒤 "감감"

明知大4년 安炳晩군… 학교선 「學友찾기」캠페인 벌여

◇실종된 安炳晩군。

친구와 삼각연애관계에 있던 대학생이 실종20일이 넘도록 소식이없어 경찰이수사에나섰고 가족들이 현상금5백만원을걸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종된 대학생은 서울明知대학영문과4학년 安炳晩군(28·仁川市北區富平洞10)。

安군은 지난달12일 하오3시께 결혼하는친구의 함을지러간다며 富平집을나간이후 소식이없다.

함을 함께졌던친구 徐순휴군(27)에 따르면 이날모두 7명이함을지고 술을 마신뒤 신부집인 서울麻浦區城山洞에서 33번시내버스를타고 西橋洞쪽으로나와 하오10시40분께 헤어졌는데 安군은『친구를만나기로했다』며 헌기와주유소앞 정류소에서 먼저 내렸다.

安군이 그뒤 소식이 없자 가족들이 친척집을 모두 찾고 사고를 예상, 종합병원등도 모두 뒤졌으나 찾는데 실패, 실종9일만인 지난달16일 富平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고 현상금 2백만원을 걸었으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자 현상금을 5백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安군의 학교에서도 학도호국단이 주축이돼 安군찾기 캠페인을 벌이게됐다는 것이다.

가족들에의하면 安군은 실종당일 집을나서기전에◆서울汝矣島모회사에 근무하는 애인 金모양(25)과 서울麻浦區西橋洞에사는 군대친구(27)에게 『서울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를걸었으며◆버스에서내릴때 친구徐군으로부터 2천원을 꾸었을정도로 돈이없었다.◆또 친척집과 종합병원등지를찾아봤으나 족적이없다는것.

수사에나선 경찰은 安군이 4년전부터 金양과 사귀기시작, 결혼까지하려했다가 「궁합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저지되자 군대에있을때 알게된친구에게 『金양부모를만나 결혼을 하게해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친구는『내가해결사노릇을 하겠다』면서 金양집을 드나들다가 金양과 가까와지기시작, 결국 삼각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安군의 군대친구는 安군과만나기로했던 12일 安군을 만나지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安군찾기 캠페인에나선 학교호국단은 1일 安군사진이든 전단 1만2천장을 만들어 경인지역과 등하교하는 학생에게 뿌렸다.

安군은 사업을하는 安昌南씨(51)의 장남으로 평소성격이 차분하고 가톨릭신자다.

仁川대건중·고교를 졸업, 明知大에 입학한 安군은 학교성적도 상위권이며 평소남과 다툰적도 없다.

安군은 실종당시 검은색가죽잠바에 金색바지 차림이었다.

경찰은◆安군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과◆삼각관계에 따른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고 전국에 신원수배했다.【朴珍列기자】

◇「失踪학우찾기」에 나선 學友들. 安군이 실종 20일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자 1일 明知大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우찾기 서명운동을 벌였다.

金塊밀수船員 검거

【釜山】 釜山세관은 1일 부산中區中央洞2街 신양해운소속 대일 냉동물운반선 제33드라곤호(1백99톤·선장 권강수·37)를 급습, 금괴 7천6백g(시가 1억5천여만원)을 압수하고 선장 권씨와 이태규씨(28)등 선원 11명을 모두 검거했다.

세관에 따르면 제33드라곤호는 지난달 30일 냉동물피조개등 78톤을 싣고 부산항을 출발, 일본 시모노세끼항에 내려주고 돌아오면서 금괴를 구입, 통신실 무전기속에 숨겨 1일 하오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것이다.【聯】

電子式전화加入 특수서비스

3種 추가·利用요금도 引下

전기통신공사는 전자식전화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통전화, 3인통화, 지정시간통보등 3종류의 특수서비스를 4월중에 추가실시키로 하는 한편 이용요금도 대폭 내리기로했다.

통신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단축다이얼, 착신통화 전환, 부재중안내, 통화중대기등 4종류의 특수서비스를 실시하고있는데 이달부터 3종류의 서비스를 새로 추가실시 한다는것.

또 현재의 특수서비스요금이 1종류당 3천원씩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다고 분석, 요금을 크게 인하,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체신부및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인 요금인하내역은 특수서비스 1종류당 요금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낮추고 2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추가되는 서비스마다 1천원씩을 덜어 받는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통일벼 재배희망 安東郡內서 70%

【安東】 경북安東郡내 농민들중 70%가 수확량이 많은 통일계통벼 재배를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安東郡농촌지도소가 지난 3월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14개읍면 3천명의 농민을 임의로 선정, 올해 심을 벼품종을 조사한 결과 올해 통계통재배희망농가는 70%인 2천1백명이고 일반벼 재배희망농가는 30%인 9백명으로 나타났다는것이다.【聯】

"5千프랑이상 所持 入國때 申告하도록"

佛서 외국인 旅行者들에 요구

【파리=安炳燦特派員】 프랑스로 여행할때 5천프랑(6백85달러상당)이상을갖고있으면 입국할때 세관에 자진신고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출국할때 초과분을 외화유출로 간주, 압류당하거나 소지외화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프랑스정부가 긴축정책의 하나로 금주부터 시행하기시작한 여행자외화단속방침에 따른것인데 이방침은 외국인 여행자뿐만아니라 재불외국인거주자(입국2년경과)에게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KAL機가 주3회 운항하는 파리의 샤를·드골국제공항도착 세관대앞에는 지난달31일부터 「5천프랑(6백85달러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참한 외국인은 자진신고를 하시오」라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무궁화 마구심어 成長장애등 우려

【順天】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대비 일선시군에서 도로변과 마을주변등에 무궁화를 심으면서 경관만을 감안하지 않은채 밀식하고있어 병충해및 성장장애등이 우려되고있다.

범국민 무궁화심기운동의 첫해인 올해 전남順天市는 2만1천5백그루, 昇州郡은 2만2백그루, 光陽郡은 2만5천9백90그루등 모두 7만7천여 그루를 지난달10일께부터심기시작 1일현재전체계획식수량의 80%이상을심었다.

그러나 나무 사이를 불과 10∼15cm간격으로 밀식한데다 한곳에 군락을 형성해 성장에 장애를주고 경관까지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順天大 李相哲교수(47)는 『무궁화의 식재거리는 토질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하지만 군락식이나 1열식(줄을지어심는방법)의 경우 간격을 최소한 1m이상 유지해야하며 1∼2년뒤에 다른곳으로 옮겨심을경우라도 50c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충분히 성장할수있다』고 말했다.【聯】

炭더미에깔려 鑛夫1명 숨져

【光州】 1일상오11시30분께 전남和順郡寒泉面午除里 태백탄광 1갱내 2백30m지점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광부 文龍圭씨(47·和順郡寒泉面午除里)가 갑자기 무너진탄더미에 깔려 숨졌다.【聯】

5行뉴스

◆高校生, 연탄가스中毒死

【江陵】 1일상오 7시께江陵市校洞170정순자씨(40)집 건넌방에서 잠자던 정씨의아들 김만종군(18·명륜고3년)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져있는것을 정씨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郡廳직원, 오토바이事故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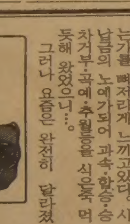
【井州】 1일상오 8시께井州市 蓮池洞 향토약국앞 우회도로 제방밑에서 술에취해 오토바이를타고 집으로가던 井邑郡청 새마을과 직원 김우섭씨(34)가 숨져있는것을 전용근씨(39·연지동473)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聯】

교통신호등 金泉市 3곳에 設置

【金泉】 金泉라이온즈 클럽이 예산관계로 신호등을 설치하지못해 교통혼잡을 빚어왔던 경북金泉시내 南山洞에 신호등을 설치한데 이어 金泉 로터리클럽에서도 2곳에 신호등을설치, 주민들의불편을덜어주기로했다.【聯】

"어디로 모실까요"

示範택시운전사 權琦鍾씨



미안한 지적이지만 우리나라택시운전사들은 불친절과 횡포의대명사처럼 돼있다. 택시의 서비스향상문제도 요금이 인상될때마다 다짐돼왔으나 공염불이 되고 있는걸보면 택시회사도 같은 그룹이다. 택시운전사 權琦鍾씨(40·사진)는 운전대를 잡은지 19년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불친절하고 횡포를 부려왔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있다. 사납금의 노예가되어 과속·합승·승차거부·곡예·추월등을 식은죽 먹듯해 왔었으니….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 친절과 법규준수가 돈에 우선한다. 손님이 타면 『어서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란 인사가 저절로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교통부가 말썽많은 운전사월급제를 정착시켜보려고 만든 시범택시회사에 취직, 사납금의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생긴 마음속으로부터의 친절이다.

權씨만이 아니라 50명뿐인 시범택시운전사 전부가 그렇다는PR. 이때문에 시범택시가 택시승객들사이에 큰인기라고 은근히덧붙인다.

"친절베풀고 法規지키니 기분좋아…"

權씨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범택시를 몰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절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걸 알수있었다. 그동안 운전사들의 불친절과 「법규무시」 습속만 보아와서 그런지 친절을 베풀면 당황하기 일쑤였다. 대부분 답례도 않고 무뚝뚝하게 앉아, 애써「친절」을 묵살하려 했다. 일부는 합승을 하려고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오해했고 시골에서 올라온 승객은 행여나 바가지나 쓰지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차에서 내리기까지 했다. 우선멈춤등 모든 법규를 지키면 『빨리좀 갈수 없느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자주 만났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고 법규를 지키니 마음이 편해서 좋았다. 교통경찰관앞을 지날때 조마조마했던 불안감도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승객들과 입씨름을 하지않게 된것이 즐거웠다. 승객중에는 뜻밖의 친절에 감동, 팁까지주며 『이렇게 친절한 운전사가 있는줄 몰랐다』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더러있었다. 그때마다 친절이있고 준법정신이있는사회가 얼마나 좋은가를 실감하고,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본다고 했다.【金首宗기자】

TV한국 방영시간

◉화 : 오후5시반 MTV Ch. 47 케블 4
◉수 : 오전10시 MTV Ch. 47 케블 4
◉일 : 오전 8시 CITY TV Ch. 79 케블 7

(로저스 케블)(Converter)
◉화 : 오후 7시반 채널 34
◉토 : 오후 7시 채널 34

1983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 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 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교육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여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 (416)762-1495 (416)745-7370
2) 원서접수마감일: 1983년4월11일(월) 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영락교회 · 김재광 목사 전화 : 423-9880
은성교회 · 장은덕 목사 전화 : 699-5913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3년4월11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개별통지함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1983년4월18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음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가렌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립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토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초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원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ACCOUNTANT SERVICES
김희체(David). 15 Jansusie(Alblon & Kipling)
전화 : (B)677-3270. (R)743-078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22-2643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스탁은 보증금 원함. 주매상 : $6,000. 부부운영 원함.
전화 : 439-9531 (오전9시~12시에만 본인 있음)

유경험자 주말헬퍼(토·일요일) 구함.
Mac's Milk, 아침 10시~저녁 10시까지
전화 : 421-1089(Eglinton & Laird Dr.)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전화 : 861-1521(B), 222-3877(R)

살림과 가게일 거들어주실 중년 아주머니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입주시 독방드림) Steeles×Dufferin
전화: 669-5301 (저녁 6시 이후)

룸 메이트 구함 (여자분 환영)
전화: 438-1528 Mrs. 김

애기 봐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전화 : 276-1212

스토아 여자 헬퍼구함
18세-24세 사이. 무경험자 무방.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63-1664

가게에서 일하실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 구합니다
전화: 532-6143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 1-476-3109(Keswick) Mr. 신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외판원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주방에서 일하실분 1명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2727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중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68-6531 Mr. 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월수입 : $6,900
전화 : 1-389-7755 (해밀톤) Mr. 차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매매(Bar도 겸해있음)
2,000 Sq.ft. Church St.(King & Queen)
전화 : 368-1086 (월-금: 11:00am~10:00pm) Mr. Cameron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몬트리올에 위치한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000 권리금 : $40,000+스탁(Stock)
1주 6일 시간: 9a.m.~9p.m.
주소 : 8356 St.Laurent Blvd., Montreal H2P 2N3
전화 : (514) 381-2108 Mr. 이재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 포함)
전화 : 547-0841(해밀톤) Mrs. 리

Dodge 밴트럭. 1981년 6기통. 27,000Km
아스킹 : $5,500
전화 : 622-2643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선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썸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다운타운 Fast Food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아스킹 $39,000. 전화 : 593-8967. 826-3450
Steven Do. P. Ho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
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데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2층 아파트딸린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먼트요함.
전화 : 1-727-6665 (Aurora)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1년반+5년옵션
아스킹 $70,000+스탁. 전화 : 781-8968(오전9시-12시)

해밀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5,000+스탁
3만5천 다운-몰게지. 전화 : 1-388-4825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
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
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위치좋은 장소 세놓습니다.
구두방이나 피자 가게하기에 적합.
1370 Queen St. E. (관심있는 분만 내방바람)

3 Bed Room 렌트
456 Gerrard St. E. TOR.
전화: 921-4283 Mr. or Mrs. 윤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층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Bloor 한인상가에 있는 가게를 세놓습니다.
전화 : 255-216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
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
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충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리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캐나다 한인사회의 유일한 일간지로서
독자와 함께 숨쉬는 〈토론토 한국일보〉는

종교란·독자페이지를

신설 했읍니다.

종교계소식

기독학자회주최 토론회

4월9일…주제「이민교회와 가정생활」

·오는 4월9일 출범하는 제 캐나다한인기독학자회는 그 첫행사로 「이민교회와 가정생활」이라는 주제의 패널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한인교회(69 William St, Weston소재)에서 열리는 이날의 토론은 2가지 주제로 나뉘어 실시된다. 패널 I은 "가정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1)한국인의 의식구조문제(유시홍 의사) 2)가정에서의 여성위치(이인숙 여사) 3)청년문화접토(김보경 박사)가 조성준씨(사회사업가)의 사회와 김의명씨(사회학박사과정)의 리스폰스(response)로, 패널 II는 "가정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명"으로 1)노인문제(최홍영 의사), 2)이민가정특회(박희민목사), 3)기독교가정의 결혼준비교육(김상호목사)이 조영자목사의 사회와 김지일박사(임상심리학)의 리스폰스(response)로 실시된다.
한편 이날의 주제강연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왕성국박사(북미기독학자회장, 구약학)가 "2천년대의 한인 이민교회"라는 특별강연을 한다.

부흥성회

소망장로교회

소망장로교회(담임목사 서인구)는 부활절을 맞아 4월6일부터 9일까지 특별 부흥성회를 갖는다.
"소망은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의 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원용 목사(재미 한인국제선교회 이사장겸 헐리웃한인선교교회 담임)이다.
집회시간은 6일(수)부터 8일(금)까지는 오후 7:30, 9일(토)은 오전 10:30와 오후 2:00이다.
동교회의 주소는 35 Kecal Rd., Scarborough, Ont, 전화 752-9727, 752-9860이다.

◀알 림▶

귀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사는 「종교란」을 신설하고 각 교회와 종교단체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Toronto·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416-533-2361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4월3일 써니부룩·파크

토론토 한인교역자회가 주최하고 한인장로교회가 주관하는 금년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오는 4월3일 새벽 6시에 예년과 같이 써니부룩·파크(Sunnybrook park: Leslie×Eglinton소재) 속 대가 담당한다.
그외의 헌금기도에 구연원 장로, 광고에 이필주 목사, 축도에 안병한 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천선볼링대회

동부장로교회청년회

동부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홍순관) 청년회가 주최하는 제4회 교회대항 친선볼링대회가 26일(토) 낮12시 Playtime볼링장(33 Samor Rd, at Dufferin)에서 개최된다.
남자개인전, 여자개인전, 혼합전, 단체전등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날의 대회의 참가비는 개인전및 혼합전이 각$7이며, 단체전은 $25이다.
단, 단체전의 경우 4명중 1명은 반드시 장로나 목회자중에서, 또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출전희망교회는 전화 431-9283, 299-656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민교회의 안정된 기초

— 현지 교단과의 대화및 조화에 —

김상호 목사

한인들이 500여명 이상 모이게되면 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50만에 육박하는 북미의 한인인구는 1,000여개의 한인교회를 헤아리게 되었다.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교회들의 생성과정에서 희비쌍곡선이 그려진다. 한편으로 종교적 백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빙어리 냉가슴의 아픔을 맛보게 한다.
토론토판 한국일보의 3월14일자 2면을 보면 "몰의 빚은 교회분규"라는 제목으로 아트란타 제일장로교회의 분규를 싣고 있다. 교
우리는 같은 한국인의 자부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교회의 안정과 조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이해타산을, 협력보다는 경쟁을, 그리고 안정과 조화보다는 갈등과 투쟁의 비극을 노출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파도기적 단계를 극복하고 되풀이 되는 위기상태를 벗어나서 속히 안정된 기초를 이룰수 있을까?
복합적인 문제에 한가지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천주교회 성주가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웅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교회명	담임목사
성도	김웅진
성산	계화삼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욱희

양로원건립운동에 부쳐

도움

진수현(캘가리 거주)

도움이라는 말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며, 순수한 마음에서 피차에 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발로라 믿는다. 그러므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때 기쁜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이나, 어떤 때 피차에 깊이가 없이 주고 받아 씁쓰름한 후회를 남기는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
최근 지상을 통해 한인양로원건립을 위해 한인회와 다른 두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어떤 뜻이 있은 듯는다는 선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의 양로원만이 바람직하며, 누가 설립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겠지만 어떤 이권문제가 있어 서로 주장한다할지라도 이 사업은 한인모두가 의무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야 하는 공동의 큰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협력이 결여된 양로원은 장래 인정이 메마른 삭막한 곳이 될 것 또한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사무적인 일로서만 처리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시작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영원히 한인 모두의 시선에서 멀어져가지 않도록 하는 2차적인 사업까지도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누가 이 일을 해낼수 있을까, 서로가 양보하며 적극 협조하는 미덕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안다.
누구나 지상을 통해 알겠지만, 토론토에 여러 단체와 44개의 교회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의 힘이 모여져 더욱 크며,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을수 있다.
누가 설립자가 되든 이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또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적격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한발 물러서야 할줄로 안다.
예를들어, 한 교회나 단체가 한 주를 담당하여 정성들여 만든 음식이라도 준비, 방문 위로 할 수 있을때, 진정 삭막한 양로병원으로 버려두지는 않을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것은 11개월에 한번, 어림잡아 1년에 한번 커다란 교회나 단체의 행사로도 가능할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내가 할 수 없게되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나로 인해서 이 영원하며 거대한 힘들이 협력을 꺼려 기피하게 …
것을 예상한다면 당연히 나는 한발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의로 시작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기대에 벗어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빈몸으로 이땅에 발을 들여놓고, 초조와 불안속에서 나 이외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말 많은 사회라는 핑계로 주위와 타협하지 않으며 여기에 와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포심과 위축감도 사라지며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다음은 나와 나의 자녀가 어떻게 처신하여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안다.
이러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며, 참여되어질 때 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경로사상을 가르키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내가 절다고 늙지 않는 것은 아니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 나는 나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자식들로부터 나를 버려두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것이다.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를 위해서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장래 우리의 후손들은 이곳 캐나다의 관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나자신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을 의식하며 하지 않으며, 어떤 발뚱을 정당한 행위로 삼게 되는 것이다.
구호만 외치는 어떤 것들 이전에 나와 나의 이웃이, 그리고 단체가 의무감을 갖고 이런 선한 사업에 적극 참여할 때 나의 후손들에게 좋은 선례를 물려주게 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영원한 한인사회의 단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위대한 사업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서로가 협조,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며, 절호의 좋은 기회를 망쳐 놓지 말기를 바란다.

주간女性

독자페이지

독자투고를 환영합니다.

투고희망자는 다음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고자의 성함·주소·전화번호 명기.
(2)가급적 요점만 간략하게 쓰실 것.
(3)개인의 명예나 사업을 근거없이 훼손하는 내용은 사절함.
(4)게재여부및 가필정정 등 편집권은 본사에 있음.
(5)일단 접수된 원고는 본사보관이 원칙임.
— 편집부 —

한국의 유모어

정옥경(토론토 거주)

지겹던 추위도 풀리고, 아지랑이 이는 봄철 어느날, 용두골샌님이 격조하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서 사돈집 나들이를 갔다.
담뱃대 하나 물고 열십리를 걸어서 사돈집에 당도하니 오랜만에 만난 사돈이 반겨맞아 씨암탉을 잡는다, 술을 걸은다해서 권커니 잡커니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다가 자리에 들었다.
한잠을 자다가 사돈영감 모처럼 과식, 과음을 한 탓에 배가 아파 잠이 깨었다. 뒤가 급해 최간(변소)에 가려는데 다리는 휘청, 의식은 몽롱, 밖은 칠흑이라, 최간에서 돌아올 때 방을 졸게 찾아와야할 터인데 무엇을 대중할꼬 했더니 마침 마루밑에 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뒤를 보고 난 사돈…
하룻길을 걸어온데다가 술도 과하고해서 무의식중에 꿍꿍 앓는 소리를 하며 곤히 잔다.
한데 뉘 알았으리, 사돈영감이 최간에 갈때에는 사랑방 마루밑에 있던 개가 최간에서 나올때는 안방 마루밑에 와 있었던 것을.
사돈마님이 잠결에 앓는 소리를 듣고, 마침 며느리의 해산이 임박했던지라, 옆에 자는 며느리로 알고 허리춤을 더듬어 내려보니 손에 불룩!
"아이고 얘들아! 애기났다! 어서 불켜라!"

겨울과 …

이원

캐나다에 이민와서 처음으로 타본 승용차가 형님의 검은 새 폭스바겐(VOLKSWAGEN)이었다.
초청해주신 형님이 거주하는 P시의 공항에 내린 후 모두 8개나 되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 나와보니 조그마한 똥뚱이차라, 순간 짐은 어디다 싣고 장록밀 10사람이 어떻게 앉아가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보니 짐은 차 붕 위에 올려 단단한 끈로 묶은 다음, 남자애들 원하여 너머 공간에 용하고 형수님과 아내 그 큰 조카딸이 뒤좌 앉고 우리의 나이어린 주들은 각각 엄마들 몰에 앉을 수 있는게 가?
차가 출발하자 다른 차에 비해 요 비행기와 같은 공' 진 때문이라는것을 알았지만 폭스바겐(WAGEN)의 조그미 이에 비해 적재기 다는데 큰 인상을
그 후 불편없이 나다가 겨울 어 아침에는 단단'

「매거진」

가림없는 진실
공정한 論評
치우침이 없는 記事가
바로
우리의
지표.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533-2361-4